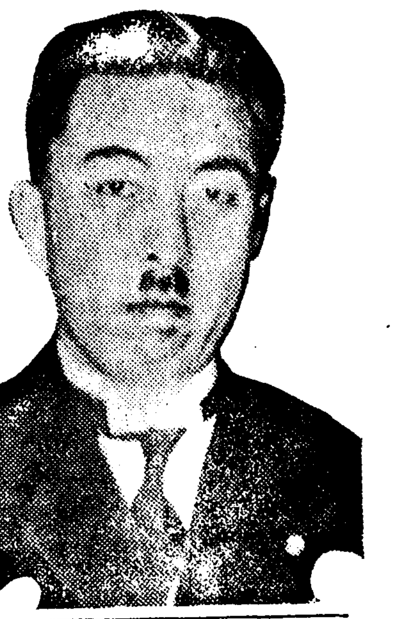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八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 / 朝光(月刊) / 女性(月刊) / 少年(月刊)

金鶴香油

財經三原則을主로 國際收支均衡目的

國力의飛躍的充實整備를積極企畫

近衛內閣의根本國策



(寫眞은 近衛首相)

【東京電話同盟】近衛內閣이企劃하고잇는根本國策이라는것은支那事變의進展에따러 今後數年間에亘하야 帝國이直面할各般의事態가 相當히 困難할것이라고 豫測케되엿스므로 이에 對應할綜合的國力充實計畫을 內容으로한것인데 筆者 組閣當初闡明한 財經三原則은 主로 國際收支均衡을 目的으로한것인바 다시 百步前進하야 數年後에 消耗國力을 回復함에 그칠뿐아니라 國力을 飛躍的으로 充實整備하려하는 劃期的 政策이다 卽 이는 陸軍의 國防充實六個年計畫及 滿洲産業開發五個年計畫의 完了年度인 昭和十六年末을 目標로하고 産業經濟의 根本策을 樹立하야 各種國力充實을 圖하려하는 唯一無二의 方途로 案出된것이다 따라서 同政策은重點的軍需工業의 充實計畫을 具體的으로 指摘한것을 筆頭로 이에伴한 物的人的資源의 確保擴充을 各方面이 모두 根本的으로 計畫하여 例하면 人的資源은 事變後의 復員計畫과 學制改革에 依한 國民智識의 向上을 指摘하고또이를 補償하기 爲하야 國民生活의 不安除去에까지 論及하엿다 政策은 以上의 趣旨約七、八項目을要約하야 文章으로써 散文化한것으로 從來의各內閣의政策政綱과가티 單語的으로 政策을羅列한것에比하야 자못異色을示하엿다 그리고近衛首相은 以上의政策으로써 今後數年間 거의 變更을不許하는 帝國의根本的不動指針으로하야 그確立에政府는重大決意로써 臨하고잇스므로 그遷移는 帝國의將來에 寄與하는바 자못大한바잇슬것이라하야注目되고잇다

時局對處根本政策 企畫院草案作成

八日參與會議에附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七日閣議에서 今後의時局에 對應할根本政策에 對하야 企畫院에 正式으로 調査立案을 命한바이엇는데 企畫院에서는 調査研究를 進行하야 八日 企畫院에서 開催될參與會議(各省事務次官)에 附議하야 脫稿하게되엿는데 前日부터 本問題에 關하야 研究를進行하야 이미 國策의 草案作成을 마치엿스므로 正式으로 採擇하고 現內閣의對時局根本國策으로 八日定例閣議에서 愼重審議한後 再開議會까지에 正式으로 採擇하고 이를 內外에宣明하야 時局의將來에 비추여 國家的炬火로서 이를揭揚하고 近衛內閣最初의 通常議會에臨하기로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七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부터 首相官邸에 開會 近衛首相以下全閣僚出席하야 近衛首相으로부터 이非常事態에 際하야 時局이 益益多端함으로 서로一層努力하기바란다는旨의 人事를 述한後現內閣의 今後의國政處理에 當할根本態度에對하야 近衛首相으로부터 聲明하고 廣田外相으로부터 蘆溝橋以來의支那事變을 圍繞한國際情勢에關하야 諸般報告가잇섯고 또末次內相、永井遞相、賀屋藏相 杉山陸相、米內海相、大谷拓相으로부터時局處理에關하야 各其重要한發言이잇섯고 最後로 陸海兩相으로부터 戰況報告가잇슨後 同十一時四十五分散會하엿다 또厚生省新設에伴한 諸般의準備를完全케하기爲하야 來十日午前十時부터 臨時閣議를開하기로 決定하엿다

松岡總裁 首相과會談

【東京電話同盟】松岡滿鐵總裁는 七日午後三時에 參議初會合 散會後에 首相官邸에서 近衛首相과 會見하고 北支開發對策을中心으로 여러가지 意見交換을하고 同三時半에 辭去하엿다

厚生省人事協議

【東京電話同盟】厚生相兼任으로 決定된 木戶文相은 七日閣議後首相官邸에서 末次內相 永井遞相 諸企畫院總裁 船田法制局長官과 會合 厚生省人事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다

戰捷의新春에 大觀兵式擧行

【東京電話同盟】戰捷의新春 빗나는 昭和十三年 陸軍始大觀兵式은 惶恐하압시게도 大元帥陛下의親臨을 奉仰하와 大本營御制定下의 八日午前十時부터 代代木練兵場에서 嚴肅히 擧行되엿다 冬空晴明한 當日 秀峰富士의 麗姿가明白히보이여 神宮外苑의翠色이 一層빗나는데 御盛儀를拜觀하려 集中하는國民은寒氣가甚한 早朝부터 式場外周에十數萬을算하고 陪觀將校도 例年의 金色正裝 代身에『카키』色軍服軍刀의 軍裝으로 威儀를正히하야 整列하엿다 今年비로소參加하는『鋼鐵의猛牛』戰車五十臺를加한 參加部隊 近衛師團을爲始하야 在京各部隊 約一萬七千은 諸兵指揮官 中村孝太郞中將指揮下에 練兵場東側에步工 騎兵 野砲 野重 騎砲 兵 輜重兵 自動車部隊의順序로 堂堂한威容을列하고 整列 恭하압시게도事變에 大御心을 寄하압신 天皇陛下께압서는 今年은特히 御通常御正裝을 召하압시사 陸軍禮式 大元帥御軍裝에大勳位及功一級金鵄勳章副章을 御佩用 大本營下時히 自動車에依한第三略式鹵簿로 平田侍從武官御陪乘 松平宮相、百武侍從長以下供奉하여드리 午前九時十分 宮城御出門 喇叭이울려오는『君代』의喇叭吹奏 諸員最敬禮裡에 同十時 式場御着 便殿에서 御先着의 各皇族王公族各殿下와 御對顔後 御愛馬『白雪』에올으압시사 四手井侍從武官의 御先導로 燦然히빗나는『天皇旗』를 御先頭로 各宮殿下 中村諸兵指揮官杉山陸相 畑敎育總監 宇佐美侍從武官長以下諸將星 外國武官等을거나리시압고 閱兵을行하압시사 廣大한 式場을 御一巡 御親閱의 御位置에白馬를모르압시엿다 仰하오면 御駒位置에 光彩를 ... 야分列式 ... 如斯히하야 午前十時三十分지나 中村諸兵指揮官의 號令指揮刀一閃하매 陸軍戶山學校學生의喇叭吹奏 男壯한『分列行進曲』에依하야 皇軍精鋭 堂堂한分列에드러가 軍靴소리 軍馬의발소리 늠름하게 堂堂한 鐵劍더욱 壯重을加할때 東南角約六百米의 高度에 堀丈夫中將이指揮하는 陸의荒鷲百八十機佐佐大佐가指揮하는 第一、寺本少將이指揮하는 第二、安倍少將이 指揮하는 第三、小澤大佐가 指揮하는第四、長澤少將이 指揮하는第五各飛行隊의 精鋭가 爆音轟轟히銀翼을 空中分列하여 轟音을나다내며 散開를 空中全을 뒤덥는다 때마침地上에는 徒步部隊의 行進에뒤이여 五十臺의 戰車가 地軸이라도 러질듯 轟轟한 轟音을내이며 猛然히 突進한다 이리하야 世界에자랑인 皇軍의 男壯한姿態를 遺憾업시 展開하매 式場을 파무든 十數萬의 拜觀者는 다만感激에 醉할뿐이다 同十時二十三分 分列을終了 大元帥陛下께압서는 天機더욱 御麗하압시게 諸員最敬禮裡에 同十一時二十五分 式場發御 宮城에還幸하압시엿다 이리하야 軍國의新春을 裝飾하는 意義기픈 大觀兵式은 無事히終了하엿다

敵機蕪湖來襲 邀擊으로又復遁走

【上海七日發同盟】七日午前十一時頃敵의 爆擊機隊는 再次蕪湖에飛來하엿스나 我軍에對하야 空爆을敢行하여왓스나 投下爆彈은 모두揚子江上又는蕪湖郊外의 水田中에 落下하고 我軍飛行機에쫏겨 目的을 遂치못하고 逃亡하여버렷다 我軍의 損害는皆無이다

杉山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七日午後四時에 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所管事項에對하야 委曲奏上 御下問에 奉答하고 同四時五十分에 宮中을退下하엿다

新京醫學校 醫科大學으로昇格

【新京七日發同盟】新學制의實施에伴하야 昨年五月에開校한新京醫學校는 大學令에依하야 今年度에 新京醫科大學으로 昇格하고 新校舍新築費로 三十三萬九千二百圓이 計上되엿는데 二個年繼續事業으로 明年末에 完成할豫定이라고 觀測된다

韓復榘를 近近懲戒處分

【上海七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山東에서쫏겨난 韓復榘軍이 大本營의 命令에 反하야 不戰하고 濟南으로부터 敗退한것은 隴海線方面의 鎭守를 毁失케하야 ...

南昌에서大空中戰 敵機七臺를擊墜歸還

【上海八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海軍航空隊는 昨七日南昌을 空襲하야 飛行場附近을 警戒中인 敵戰鬪機E十六型一○機와 空中戰을 演한結果五機를 擊墜하고 飛行場에 進入하야 場內에잇는 爆擊機를破壞하얏다 또臨途我空襲隊의 一部는 다시 敵機E十六型戰鬪機十數機와 空中戰을 交한結果 敵機二機를 擊墜시켯다

米水上機行方不明

【산디에고=南캘리포니아州=六日發同盟】산디에고海軍當局六日發表에依하면 海軍所屬 水上哨戒爆擊機一臺는 乘員七名을搭載하고 산디에고西北方二百哩의海面을飛行中 五日午後五時에 산디에고根據地와 無電連絡이斷絶된後 行方不明이되엿다 同機遭難의報道를接하고 산디에고軍港으로부터 沿岸警備艇二隻과 水上機多數를出動하야 墜落個所로생각되는海上을 搜査하엿스나 아직機影을보지못하게되엿다

大鷹青島總領事談

【安東七日發同盟】大鷹青島總領事는 南島歸任의 時期를大連서待機하기爲하야 七日正午에 安東을 通過하야 大連으로 向하엿는데 氏는말하기를 青島를爲始하야 膠濟沿線의權益이 支那兵에게 蹂躪된것은 實로遺憾이다 나는 이로부터大連에가서 同地의撤退居留民과 連絡을取하고 一日이라도빨리青島에도라갈수잇도록 하려고생각한다 何如튼 山東復興에對하야는 官民이一致協力하지안흐면안될問題이다

하게되것이라고 漢口支那軍當局은 服然韓復榘의 態度를 非難하고 近近 正式으로 懲戒處分에附하기로되엿다한다

방·젤란드博士 英首相과協議

【倫敦七日發同盟】白耳義前首相방·젤란드博士는 七日正午 首相官邸에 첸벌린首相을 訪問하고英國經濟顧問 리드·로스氏 其他 産業顧問을 交하야 방·젤란드博士가 提唱하는 世界通商案을 中心으로 意見交換을 遂하엿다 會談은 前後四時間에 미첫는데 방·젤란드博士는 作成의 報告書는 今後二週間以內로 英佛兩國政府에 提示한後公表하기로 意見一致를 보앗다고

强軟兩論擡頭로 蔣介石苦慮

【香港七日發同盟】第二期抗戰準備를 急히하고잇는 蔣介石은國民政府를 改組함에 잇서서 行政院長으로 孔祥熙를 副院長으로 張群을 据置하고 彼는軍事獨裁에 處하야 抗戰結束을圖하는一方 對外的으로는 英米의援助希望을 버리고 香港、漢口를最後의 根據地로서 猛活動을하고잇는데 帝國政府의 斷乎한支那膺懲決意에 對하야는 只今새삼스러히 慄然하며 掩蔽할수업시 大端히 苦悶하고잇다 그러나 蔣介石은 今日에와서는 過般의 抗戰繼續聲明을 도리킬수도업시 오히려 自家陣營中에 背後에 追附하는 抗日赤色의暗影에 脅威할박게업게되여 그結果蘇聯의 援助는 益益積極的으로될것이나 果然彼等이 意圖한바와가티 戰局이 自己에게有利하게 展開할지 못할지 크게疑問視된다 그우에 廣東軍의 內部에도 平和、强硬의兩論이이러나 그影響은 南政權內部에도 反映하야 今後의 推移는자못微妙하바가잇다

陸軍特別 志願將校採用

陸軍에서는 四日附告示로써 特別志願將校를 採用하기로 되엿

上海工部局改組 米佛兩政府共同協議

【倫敦七日發同盟】英國外務省은 七日上海工部局 改造에 關하야日本政府의 要求內容에 關하야現地當局으로부터의 報告를 接受하는同時에 卽時檢討에 着手하엿다 內容에 關하여는 檢討를 終了하기까지 一切發表치안흐나 英國政府는 問題의 重大性에 鑑하야 米佛兩國政府와도 密接한連絡을 取하야 日本政府의 改組案에 對하야 共同協議를 遂할意向이라고 觀測된다

戰時體制에處할 施政의根本方針

南總督局長會議서闡明

(寫眞은 南總督)

南總督은 戰時體制下에 맛는 昭和十三年의劈頭에際하야 半島官民의 擧國一致的 時艱克服과 施政各部門에亘한 畫期的飛躍을 期하야 舊臘來 總督府首腦와 鋭意그根本的 針路의 確立을進行하고잇든바 今八日午前九時卅分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 臨時局長會議를召集하고 席上 南總督은 支那事變의 戰果는 顯著히 進展하고잇슴에不拘하고 益益長期에亘한 對策을考究할必要에 迫되고잇는情勢에잇다 特히 國際關係에잇서서는더욱複雜多岐에 亘하야 帝國으로서도 長期對策의 根本方針을 確立하는段階에 드러갓스므로 我半島에잇서서도 特히 地理的其他關係로부터 今次事變에 對하야는 重要한職責을가지고잇서 帝國의 大陸政策에 基한 我等의 使命은 今後益益重化하게 되엿다 總督은 從來機會잇슬때마다 事變이 延長될때의 覺悟를擴內官民에게 求하여왓스나 이것은 抽象的觀念의 統一에 不過하엿다 그러나 今日에至하야는 이를具體的方策에 表現하지 아니하면 아니될情勢로 되엿다 故로今後時局의推移에 處할 半島施政의 對內、對外根本方策에 對하야 大綱을 示하야 今次事變에 關하야 半島의 地位는 積極的能動的立場에잇다는것을 强調하고 또前進하야 右大綱에 基한 總督自身의 腹案을 提示하야 施政各部門에亘한 具體的方向을 示한것이라고보인다 特히 右根本方針의 具體化에關하야는 이를 綜合的으로統轄하야 調査研究에 當할 機關新設도 此際必要하다하야 例하면 總督府部內에 强力한委員會를設置할것이라는 意見도 傳한樣이다 이리하야 列席한各局部長은 總督自身이 闡明한 今後의 施政針路에 關하야 全力을다하야 逐次 그具體化에 邁進하기로 協議하고 同十時十五分 散會하엿는데 南總督이 闡明한 戰時體制下에 處할 半島施政의 具體的大綱은 對內外兩面에 잇서서 具現될것이라고 注目된다

隴海線敵軍動搖

【上海七日發同盟】追擊又追擊津浦線을 南下한 福榮部隊로말미암아 隴海線方面의 敵戰線은 벌서 動搖의 비롯되여 漢口來電에依하면 我軍의 濟南攻略에 依하야 隴海線一帶의 支那軍의 唐悠은 非常한데 特히 津浦線南北으로부터 挾擊의 體勢를 取하야 연기때문에 浦寧港으로부터 徐州에至하는 隴海線沿線의 堅固한 陣地도 벌서 軍事的價値를 喪失하야 支持할수업다고보앗던지 七日朝부터 浦寧港의各施設을 爆破하기始作하야 附近의 支那軍은 徐州를 目標로 集結하고잇다고 한다 또徐州가陷落되는境遇에는 멀리西方으로退却하야 鄭州에集結하야 京漢線의 友軍과合하야 鄭州附近의 陣地에 依據하야 必死的防戰을 試할計畫이라고한다

羅津特產取引所 設立運動表面化

總督府는全然白紙의態度 東北滿特産의 北鮮流出은 逐年增勢에잇서 積出港으로서의 羅津의 特産集散은 繁忙을 加하고잇슴으로 일즉이 地元에서는 大豆、豆粕을 工場物件으로하는 特産取引所의 設立運動하야 過般田口羅津府尹以下 同府有力者가 來京하야 總督府에 對하야 陳情하는等 그러나 總督府로서는 羅津港의 將來에 對하야는 相當한 期待를 가지고잇스나 特産取引所의 開設은 아직 尙早하다하야 目下로는 全然白紙의 態度이다

伊太利政府亦是 大海軍建設計畫正式으로發表

地中海制覇不遠實現

【上海七日發同盟】... 英米二大海軍國이 相連하야 大海軍建設에 進出하려하고잇는此際伊太利政府는 七日今年度以後三萬五千噸級新銳主力艦二隻建艦을 包含한 大海軍建設計畫을 正式으로 發表하엿다 그內容은 今回三萬五千噸級新銳主力艦二隻에스프레니와 型巡洋艦十二隻及潛水艦多數를 建造하리라고 命令하엿다 新主力艦二隻은 各各羅馬及 임페리알 이라고 命名하기로되엿다 新海軍建造計畫은 舊臘來伊太利首相으로부터 各各電報로써 工事著手의 命令을내리엿다 이番에 ... 行하는 陸海軍首腦部의 數次에 亘한 會合의 結果決定된것으로 新艦艇의 建造는 卽時 一齊히 着手케될터이다 伊太利 全國各地의 海軍造船所에는 이미 無數한 艦艇配置에 頭痛을 일코잇는 英國에도 적지안흔影響을 與할것으로 觀測되여 地中海에 對한 伊太利 海軍의 多年間의 꿈이 實現될것으로 觀測된다 利海軍은 優勢한 大艦隊를擁護하고 佛國海軍을 斷然壓倒할計畫이 完成하는날에는 伊太利

時事解說

國民政府改造

◇

元旦 漢口에서 열린 國民黨中央常務會議는 重慶 蔣介石을 中心으로 國府軍政要人을 網羅한 重要會議에서 蓄漏內定하엿든 國民政府改組를 正式으로 決定하고 蔣介石의 行政院長辭任을 爲始하야 各部長의 更迭을 發表하엿다。卽 一、海軍部를 撤廢하고 事務를 軍司令部에 합하고 經濟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 等을 廢止하고 軍事委員會 第三、四部를 實業部、經濟委員會의 公路處等交通部에 合倂하기로 決定하엿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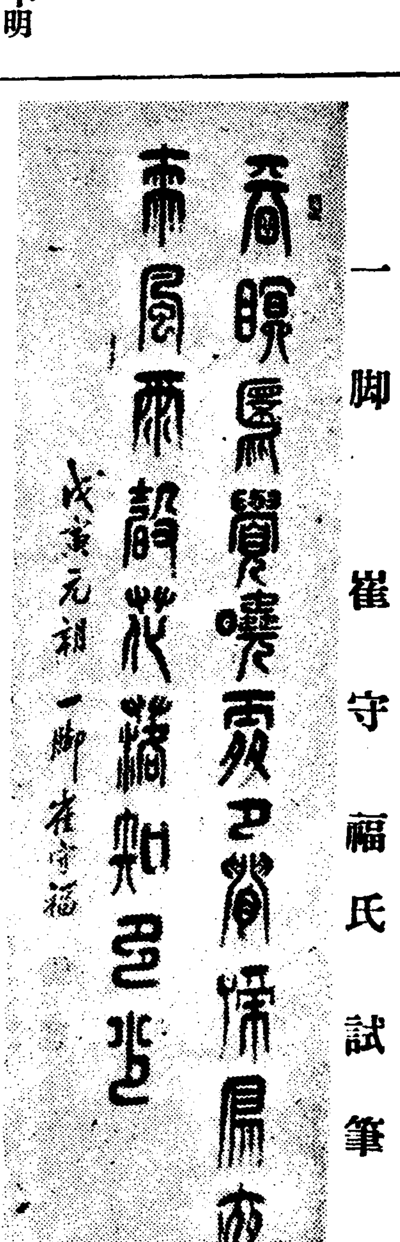
如斯히 從來의 行政院九部中 海軍部 鐵道部를 廢止하야 內政 外交 軍政 財政 經濟 敎育 交通 七部로 統合 整理하는同時에 交通部長에 張公權 敎育部長에 陳立夫 經濟部長에 翁文灝를 任命하엿다 그리고 國民黨以外로부터 人材를 集合하야 國政에 參畫케하는 見地에서 十五名의 無任所部長을 任命하야 行政委員에 列席케하기로 하엿는데 이에 周恩來 毛澤東等 共產黨의 領袖가 無任所部長에 列席하게되엿다。

◇

右共産黨首領의 國政參與는 國共合作의 具體的發現으로 解釋된다

◇

國民政府改造中 가장 注目을 끄는것은 經濟 運輸機關의 整備統合하야 나머지 國土의 資源에 抗戰에 動員을 目的으로 한 實業部、經濟委員會 全國水利委員會 全國經濟委員會 等을 統合하야 經濟部를 新設하는 同時에 戰時國防工業을 整備하고 軍事委員會第三、四部를 이에 合倂하야 經濟部長에 重大使命을 가진 翁文灝를 起用하야 國內生産機關의 戰時動員을 企圖하엿다 그리고 鐵道部及 全國經濟委員會의 公路處 交通部에 合倂시킨것은 國內交通機關을 戰時動員에 有効하도록 그統制를 强化하려함이다。



一脚 崔守福氏試筆

英米通商交涉開始 米國務省正式發表

【華府七日發同盟】米國國務省은 七日英米通商條約締結에關한 正式交涉을開始할것을公表하고 그準備로 來三月十四日부터 關係業者의 公聽會를開催한다는旨를 發表하엿다 關係業者는 今後六週間以內로 各自要望品目에對하야 政府에陳情하야 이에基하야 三月十四日부터 公聽會를開催할터인대 公聽會는 約二週間繼續할豫定이나 그後英國政府와 折衝하기로 되엿스므로 新通商條約의 締結은 아마六月以後로될것으로보인다 米國政府는 過般來 英國政府와의間에 豫備交涉을거듭하야 協定의 基本原則은 大體로 確立되엿스므로 今後는主로 個個의細目에對하야 當業者側으로부터 重大한 反對가잇스면 適當히該項目에 修正을行하기로하고 米國側의 態度를 綜合한後 近近華府에서 英代表와 最後的折衝을 行할豫定이다

히틀러總統 羅馬訪問키로決定

【伯林七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去九月뭇솔리니首相의 獨逸訪問에答하야 近近伊太利를 訪問하기로決定하엿는데 大體五月九日伊太利帝國宣言 第二周年記念日을 期하야 羅馬를訪問하기로 되엿다 伊太利政府側은 이미 챠노外相을 歡迎委員長으로 推擧하고 히틀러總統歡迎에 萬全을다하고잇는데 히틀러總統은 羅馬外에 또나폴리、피렌체兩市도 訪問할豫定이라傳하다

農事試驗場 事業設計會議

總督府農林局에서는 一月十七日부터 三日間 各道農事試驗場事業設計協議會를 開催키로 되엿는데 第一日은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局長訓示、諮問答申 第二日以後는 水原農事試驗場에서 設計協議 其他協議를 行하리라한다

漢判은 新天地面化하고잇는바總督府로서는 羅津港의 將來에 ...

連絡完成 九龍、廣東間

【香港七日發同盟】香港對岸의英國租借地九龍과 廣東을連絡하는自動車道路는 殘在한 深圳河의 架橋工事가 最近完了하엿스므로全部完成을 보게되엿다 또 廣東省政府는 最近의 戰時狀態에 鑑하야 自家用自動車의交通을非常히警戒하고 禁止的制限을加하엿다

對日態度에對해 駐歐各大使協議

【巴里七日發同盟】新任伯林駐劄大使東鄕茂德氏는 六日伯林으로부터 巴里에到着하엿는데 一方日本駐劄來栖三郞大使도七日夕 巴里에到着할豫定이며 巴里駐劄杉村陽太郎博士와 함께歐洲諸國의 對日態度에對하야 各其情報를交換하고 協議를遂할豫定이다

八面鋒

◇ 어제는 蘇聯서 海軍擴充說 그제는 米國서 軍備十一億弗 說 오늘은 伊太利서 海軍大擴張說。

◇ 來日은 佛國서 擴張說이잇스랴나?

◇ 一國은 他國을 핑게삼고 他國은 또他國을 理由삼아 結局各國이 軍備擴張競爭。

◇ 軍縮에 對한 國際條約이 업는지라 自由로 國力을 다해서 競爭할것은 當然한結論。

◇ 그러나 問題는 軍備에 잇지안코 그것이 誘來할 政治的經濟的關係。

◇ 二十二日부터 通常議會를 再開한다고。

◇ 戰時下라 政府案이 一瀉千里로 通過될것은 想像키不難하나

◇ 對外、對內策을 闡明할 議會니만치 意義는 重大。

◇ 九金以上 製造禁止로 銀鋪金銀商의 轉業、倒産者가 續出한다고。

◇ 物價高니 賣買無는 이놈리 이金의 缺乏。

朝鮮對上海貿易 昨年中百萬圓超過?

在上海總領事로부터 總督府에의 報告에依하면 昭和十二年十一月末까지 同年中에잇서 朝鮮으로부터 上海輸出額은 如左하다 (海關金單位)

綿製品	二三八
乾魚燻製魚	一、三七一
貝類	一四、一五四
乾海老類	一六、一四一
그他海産物	二、六三一
纖維類	九、一三九
乾物	五三七
苹果	一、八五
種子	二、七五三
野菜	二、六二六
藥品、香料	七九、二七〇
動物、油類	二〇、一二五
紙類	一四、二三一
木材	一二四、六八七
石材泥土類	、四四、四三八
雜貨	五、四九二
計	三四九、八二〇

그리고 昭和十一年中의 二七六、八一一金에比하야 七二、〇〇九金의 增加를示하야 十二年中의輸出額은 邦貨換算으로 百萬圓을超過하리라고 豫想되고잇다

正確한眼鏡은

檢眼無料 (眼鏡一式注文限)

檢眼 洪錫厚博士

京城鐘路靑年會館下層 光學堂眼鏡部 電光二二八一 主任 曹秉學

明治會館滿員謝禮

鍾路에게신 여러분!!! 偏狹한이곳에 每日가티 枉館해주시와 實로 感謝無比하오며 따라서 謝恩奉仕의 意味로써 左와如한 메뉴-를 公開하는바이오니 또한 枉臨하여주옵시기를 바라옵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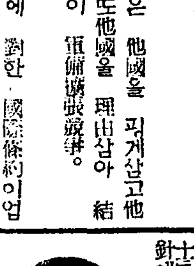
謝恩メニユー

御一人前 二圓이면

ビール 一本
御サツポロ
菊正宗 一本
サイダ
茶碗蒸
御飯付

內鮮人女給オールサービス 그리나 チーブ는要求치안습니다 高級이고도 經濟的인 明治會館!! 安心하고 親舊交際함은 오직우리明治會館은カフエー가아닌同時에 ノーチーブ로有名한明治會館입니다 和食洋食喫茶營業

一月元旦 本町二丁目(組屋橫町)(本町タクシ隣リ) 高級社交場 明治會館 電本三七一〇番 主 朴點伊



【생선룡성】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 科學的관상의大家로서 만흔 대사업가와 名士들의관상을보고 大成功을식힌人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職業선택과 吉凶과 婚姻과 夫婦間의 서로 順間하는 것과 株式、期米、鑛山業 이로써 利益을보며 損害를 막하나 평생의 吉凶、訴訟의 勝敗等 어두어 한 것을 明確히 判斷하여 開業成功의 길을 게시하여 드립니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

◇地方에게신분은 생년월일과 要件을자세히적으시고 面談하시면 세히회답해드립니다 (사진잇스면더욱明確함)

京城相學院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漢日鮮滿 新字典 附音順索引

李命七 先生 編 李允宰 先生 한글監修 文世榮 先生 滿、華音監修

洋裝全一冊 菊版定價金一圓二十錢 特價金一圓(送料並) 八百頁

初版賣盡·再版出來!

우리日常生活에 가장 重要한字典이 한글로 完全히 編輯한것이 업슴을 늣기게되어 編者가 五個星霜을 苦心研究하야 編輯하고印刷에 三個年을지내서 이제야 비로소 字書界에 新彗星이 出現하엿다。家家에 一冊式 備置하시라!

內容=每漢字마다 朝鮮音、日本音、滿洲音、中華音을 一一히 對照區別하야 字意를解釋하고 若干의 活用熟語를 付하고 한글로 그 意義를 詳譯함。卷首、卷尾에 部首索引을 並附하고 全編各字를 發音順으로索引表를 卷末에添付함

康熙字典、中華新字典、辭源、國音字典 等 數十種의 字典을 基本삼고 新制使用하는 字들을 網羅收容함。

卷首에는=總論 漢字의朝鮮音規定 한글綴字法의規定 華音表記規定 滿音表記規定 假名字의規定 等數十頁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二一番 (私書函光化門局三十二番) 電話光化門③三三五一番 振替口座京城九七五六番 三文社書店

全鮮各書店에서發賣함 品切된時는直接本社로注文하시옵

實行委員會를無視 當初決議대로適進

스테이슌會結果를보아다시對處

儆新理事會態度不變

경신(儆新)폐교의전제로 금춘 신입생을 모집하지안는다는 북장로회조선선교회실행위원회의요구에 대하야 경신리사회가 신입생모집을 강조(强調)하는동시에 선교회가 학교경영을 히망치안는다면 리사회의 다른무단체로서 계속경영을하겟다는 사개조의 강경한결의를 작년십이월이십일에 하얏슴에대하야 실행위원회가 작일 그결의가규측에 근거가 업다는것을리유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결의를 하엿다함은 기보한바로 이결의의 통고를바든 리사회에서는 팔일오전열시부터 리사장 『쿤쓰』교장집에서 회의를열고 실행위원장 『로ー드』(魯解理)씨를 청하여다가 리사회결의문에대한 위원회의 태도를 다시한번 타진(打診)하는동시에 위원회의 결의문에대한 상세한질문을 장시간한다음 리사만으로 회의를열고 론의한결과 실행위원회는 북장로회 조선선교회의 상치대행기관(常置代行機關)임에 지나지 못하는것으로 경신리사회와 직접관계는 아무것도 업는기관으로서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은 리사회가 장차일을진행하야 나아가는데 참고는될지언정 하등구속력(拘束力)을가지는 것이아님으로리사회로서는임이결의한대로대처할뿐이다 그러나선교단체가현재학교경영권을가지고 잇는관계상경성스테ー슌회의 결의를기다려서만 실행위원회와 간접으로 관계하게되는것임으로 오는십일일에열니는 이회의의 결과를기다리기로 하고 오후하시 휴회하엿다

注目할스테ー슌會 十一日開催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야 문제의 경신학교와 직접관계가 되는 경성스테ー슌회에서는 십일일오후네시부터 남대문통오정목『로ー드』(魯解理)씨집에서 월례회(月例會)석상에서 태도를 결정하기로 되엿는데 그회의에서 리사회를 지지하느냐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지지하느냐는 것은 문제의 장래진전상 중대한관계를가지고 잇는것임으로주목할바이다

醫專을臨時校舍로 女醫專新春開校

今年은豫科生六十名을募集 明春에나新校舍로

고김종익(金鍾翊)씨 미망인 박춘자(朴春子)녀사가 고인부군의 유지에 의하야 팔십만원을 경성녀자의학전문학교(京城女子醫專)의 설립기본금으로 제공하야 금춘신학기부터 개교하기로되엇거니와 동교는 예과생 륙십명을 모집하야 신학기부터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림시교사로 정하야 개교하얏다가 명춘신학기부터는 신교사로 이전할터이다

各地新設鐵道 建設事務所變改

철도국에서는 성진(城津)에건설사무소를 두고 혜산(惠山)백무선(白茂線)탑선및 평원동부선(平元東部線)의 건설사무를 마라보고 잇섯는데 이미 혜산선의전통과 평원선(平元線)고원(高原)성내(城內)사이의 개통으로차창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오는십사일까지에 성진건설사무소를 폐지하고 새로정진철도사무소에 건설계(建設係)를 두어서 백무선의남은 공사의일체를 담당시키기로 되엿다 평원선은 서부(西部)와 동부(東部)로나누여잇섯는데 평원건설선으로하야 평양건설사무소의 관할로옴겻스며 방금 공사중인 동해(東海)건설선은원산철도사무소에건설계를두고담당중이든바 역시 십오일부터 그것을 폐지하고 새로강릉(江陵)에건설사무소를 개설하야 동해선공사를 진행하기로되엿다

今日龍山鍊兵場서 壯嚴한陸軍觀兵式

금년의 륙군첫관병식은 팔일오전열한시 룡산륙군련병장에서 소기(小磯)군사령관의 렬병으로 성대히 거행하엿다 이날정각에 소기렬병관은 륙군대장정장으로 늠름한자세로 입장하야 장내의 동편에 마제형(馬蹄形)으로정렬한 보병제칠십구련대 공병(工兵)제이십련대 야포(野砲)제이십륙련대 기병제이십팔련대는 제병지휘관(諸兵指揮官)심택중장(深澤中將)의 호령에따라 일제히 경례하고 소기렬병관은 막료를 인솔하고 각대를렬병한후 장내서편에잇는 렬병관자리에 물러섯다 뒤를이어 각대의분렬식이 시작되여 규률잇게식을진행한후 오전열한시삼십분에식을마치엿다 뒤를이어 심택지휘관은 렬병관에게 식을마친보고를하고 해산하엿다 이날래빈으로는 남(南)총독 좌백(佐伯)경성부윤기타 다수가 참가하엿다 (사진좌상은 렬장한 남총독, 우상은 소기군사령관, 아래는 렬병식광경)

大同專門新誕과

大乘的見地에서 雙手를들어歡迎

"崇實"의終焉은愛惜不已 平壤社會의反響

【平壤】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는 사십년의찬연한자최를 남긴채 그 일홈조차사라지고말게 되엿다

숭실전문학교는 조선 공사립전문학교가운대 가장오랜력사를 가지고 최초에는 숭실대학(崇實大學)으로 평양교육계에서는 물론 전조선안에서 단연두각을 나타내엿스나 선교회에서 신사참배문제를 리유로 교육계에서 인퇴하기로 태도를결정한후부터는 사선에서 부침하더니 칠일 교명, 학과를 전연 달리하는 별개의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專)로 회신하는 정식의 발표를보게되어 교우회, 교회방면에는물론 일반사회방면에서는 다소섭섭한감도 업지안흐나 반면에 독지가 리종만(李鍾萬)씨의노력으로 사립전문학교가계승탄생하는기쁨을 평양인사들이 떡도반가워한다 이제 숭실교우회장 교회방면의 감상을드러보기로한다

崇實校友會長 禹浩翊氏談

아직 리종만씨측에서 아모런 정식의 서신이업스므로 무엇이라구이야기할수업다 여러가지노력으로 최선을다하여 모교의존속을에써왓것만 숭실전문학교는 기어코죽고야 마럿스니 섭섭하기짝이업다 그러나 대신으로 대동공업전문이 탄생하게되니 계승적견지에서 장수를도리켜서 환영하며 건전한발전을빕니다 숭실교우회도 근일간부회를 모집하고 거취를 결정하겟다

教會側 吳胤善氏談

숭실전문학교는 반도문화사상으로 통해보나 학교의 력사로통해보나 사십개성상 동안에 문장재자 다수를 배출한것은두말할것이업다 이러틋 귀중한학교가 재작년선교회가 교육인퇴를 선언하여 숭실계삼교가 사선에 방황하게되여 구명운동(救命運動)에 최선을다햇스나 숭실전문이 제일착으로 명실공히 소멸하게된것은 평양인사는물론 조선천지의 사가 통탄하는바이다 그러나 천행으로 경성의 독지가 리종만씨가 명실상부하는 숭실전문으로 인계를하기로되여 만반공작도햇스나 주위의사정이 불허하여 공업전문학교가 그후신으로 탄생한것은 최대의 경의와환영을하는터이다 물론 리종만씨의 본의는아니나 교명 학과를 변경하고 공업전문학교로 갱생하는 오늘에 이학교는 평양의지보일뿐아니라 조선이가진 자랑으로 오로지건전한 발달을 성심으로축하한다

新設大同工專에 相當經常費補助

今年은豫算編成後로明年부터 總督府學務當局意見

리종만(李鍾萬)씨의 거탄적특지로 평양(平壤)에신설될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業專門學校)는 불일간정식서류를제출하야 허가를어든후금춘신학기부터 개교하기로되엿거니와 총독부에서는 동교에대하야 리씨의후의를 적극적지원하는동시에 현하시국에 가장적절한 국책적산금증산계획에필요한 광산공업을 중심으로하는 학교이므로 금년부터라도 상당한 보조를하고십흐나 동교문제가 발생된때는 아미금년도예산이편성된후이엇스므로 보족이엇지할 도리가업스나 명년부터는 매년 경상비로 상당한예산을계상하야 보조할터인데 이에대하야 총독부당국자는 말하되 이러한학교는 국책적의미로 보나 조선의실정상으로 보나매우 필요한학교이므로 상당한경상비를 보조하는것이 당연한일이다 그러나 동교문제가 금년도예산 편성이후에 생겻스므로 금년에는 엇지할도리가 업스나 명년부터는 상당한경상비를 보조할의향이잇다

四溫이저버린酷寒 今朝零下十七度七

寒氣는當分繼續할터이다 京城記錄은零下廿三度一

금년들어 지난초하로날이 봄과가티 따스하엿든것도 그날뿐으로 그다음부터는 맹렬한추위가 그대로 계속되여오더니 팔일아츰은 자못 혹독하야 문고리가 떡떡붓고 길로나가면 입김이 럭럭어러붓는다 그도 그럴것이 팔일아츰 최저온도가령하십칠도칠로 금년겨울들어 제일가는추위이다 그러나 경성의최저온도의 기록이 지난소화이년 섣달금음날령하이십삼도일이라는 혹한이 잇섯스니 그대지 기록적추위라고할것은업다 일월상순의 례년의최저온도를보면 소화십년의 령하이십이도이 소화사년의 령하십칠도오 소화오년의 령하십칠도오가 덜하여서 작년이달상순에는 유난하게 따뜻하야 최저가 령하십이도구이엇다 그러나 금년은 작년에비교하야는 훨신추운 모양이다 작년의 최저온도가일월십일일의 령하십삼도이고 재작년의최저는 일월십칠일의 령하이십도일이엇는데 팔일은 물론 작년의최저온도를 돌파하엿스나 아직금년추이는 더하여 가서 이달하순경에 그한고비가 올것이라고한다 방금우세한고기압이 몽고와만주방면에 머물고 잇고 서북바람이불고잇스니 저기압이생겨서 남쪽바람이 불어올때까지 당분간추이가 지속될것으로 사온(四溫)날세는 어듸로든지 숨어볼엇는지 요며츨동안은 바랄수업겟다고한다

市內의故障水道 每日三四百處

今年드러선四日四百九十六個處가最高 眼鼻莫開의府當局

금년에드러 정월초하로날 하로만 따뜻하엿슬뿐 이후 계속하야 몹시 추워서 팔일에는 경성에 한란계가 드듸여 령하십칠도칠분이라는 최저기록을내엿는데 이에따라 경성부내각처의 수도고장도 만히생겨서 어떤곳에서는 쉬수구녕을 겨고잇는데 팔일오전열시까지 부에 신고된것만 보면 고장생긴곳이 ▲일일에는 칠십이개처 ▲이일에는 팔십칠개처 ▲삼일에는 이백륙개처 ▲사일에는 사백구십륙개처 ▲오일에는 삼백륙십구개처 ▲륙일에는 사백륙십오개처 ▲칠일에는 약삼백칠십개처 이엿다 지난사일의 사백구십륙개처가 제일만흔 수효이엿는데 이날의 온도는 최저령하십륙도륙분이엿다 그러고 이번겨울들어서 작년십이월사일의 오백팔십사개처인데그날의온도는 십도륙이엿지마는이와가티 고장이 만히생기게된것은 여름에쓰는 수통마개를 겨울에쓰는 수통마개로 박구어 논동사가 다못나지 안햇기때문이라한다

昨年中激減된火災

소화십이년도 경성부내의 화재는 구부내(舊府內)에입백팔건 손해약팔만오천륙백원으로 소화원년이래 처음보는 적은피해이엿스며 신부역(新府域)으로륙십오건 약십일만륙천사백원의 손해로 소화십일년의 오십일회손해 일백십오만사천원에 비하면 약십분지일박게 안되는것으로 소방서에서는 매우깁버하는동시에 반이다가티 경하할일이라고한다

石炭車가顚覆 車夫一名卽死

輓馬가뛰는바람에

팔일오전열시 십분쯤되여 부내 옥인정(玉仁町)백이번지 김성규(金正奎)(三二)의 집아페서고시정(古市町)사십삼번지의 오호 고원운송점(高原運送店)마차군서게정(西界町)백이십구번지 김영진(金永鎭)(四九)이가 석탄을 실고가다가 말이 무엇에놀랏는지 뛰는바람에 석탄짝이 문허지는바람에 마차부는 깔려 직사하고 전기검성규는머리에 상처를입은참사가이러낫다 부도더러잇는터이다 경성부수도과에서 조사한바를 보면 고장생긴곳이 (?)

路上에遺棄된 現金出納器

팔일오전여덜시쯤 부내원정(元町)일정목일백이십구번지 령목병원(鈴木病院)압길가에 『레지스터ー』=현금출납기=한대가산산히부서저잇는것을 통행인이발견하야 소관용산서에 알리워왓스므로 동서원이 현장에달려가서 조사한결과 그속에는 현금이모소리업서젓는데 동서에서는 도난당한 주인공도 알수업스며범인도 알수업서 목하 피해자와범인을엄탐중이다

教育關係問題에 總督府萬全之策

총독부에서는 조선교육령의개정과 조선교육의 전면적확충계획실현에 대하야 만전을기하야 교육령개정에 대하야는 산택(山澤)심의실수석사무관과 고미(高尾)학무국장이 도동하야 법제국에대한설명을하고잇는데 또확충계획에대하야는 거액의예산이룰것임으로 염원(鹽原)학무국장이 일월상순경에 도동하야 대야(大野)정무총감과함께 의회방면에 설명을 할터이라고한다

酒朋兩名을 亂刺重傷

【鎭南浦支局電話】 칠일오후칠시경 진남포부명치정(明治町)의 어물상(魚物商)신전호길(新田戶吉)이란 사람의 집에서 동부내억양기리(億兩機里)에사는 박총서(朴總緖)(三□)와 송광근(宋光根)(二□)과 세사람이모이어 술을먹고 잇든중에 사소한말다툼이 이러나 전기신전은커다란 식도를 들어서 두사람을 함부로찌르며 발뭉서는 뒤머리를 찔리워 륙혈이 락자하게되엿다 마츰그근처에 자혜의원이잇서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옴기어 곳응급수당도 하엿스나 상처가넘어커서 생명은 국히위독한중이라한다 가해자 신전에대해서는 진남포경찰서에서 구금취조중이다

銀盤의精銳總動員

中等對抗과都市對抗

白狗氷俱樂部主催와 本社後援下에

오는十五、六兩日間淸凉里에서

비상조선(氷上朝鮮)의 정예를 망라할 중등학교와 도시대항전 이 얼리어번지면 은반의 정예를 복하고잇는이때에 조선내에서는 제이진을 양성하는 각종대회가 련속적으로 열리게되엿는데 그중에도 가장중요성을띄운 제륙회전조선중등학교대항빙상경기대회(全朝鮮中等學校對抗氷上大會)와 본사후원의 제삼회전조선도시대항(都市對抗)빙상경기대회는 백구(白狗)빙구락부주최로 오는십오일과 십륙일량일오부터청량리(淸凉里)링크에서 열리게되엿다 이대회의 영단을목표로 각지의로장들은 벌서부터 고잇는데 모교와 향토의 명예를 걸머진 용사들의 격전은벌서부터 예상케하여 향대회의참가규정은 다음과가다

中等對抗氷上規定

▲時日=一月十五日(土)正午
▲場所=淸凉里綜合滑氷場
▲申込期限=一月十二日午後五時까지 京城府本町一丁目四六 朝鮮體育會事務所로
▲各校出場選手=各種目三人以內(但 二千米競走는 各校 一組에 限함)
▲參加金=每校三圓
▲競技方法=競技는 全部 『레이쓰』으로 行하고 採點은 一等五點、二等四點、三等三點、四等二點、五等一點(但 繼走는 倍數로서 採點)
▲競技種目=五百米、千五百米、五千米、一萬米、二千米繼走

都市對抗氷上規定

▲時日=一月十六日(日)午後一時
▲場所=淸凉里綜合滑氷場
▲申込期限=一月十二日午後五時까지 京城府本町一丁目四六 朝鮮體育會事務所로
▲各都市出場選手=各種目三人以內(但繼走는 每都市一組에 限함)
▲參加金=每都市三圓
▲競技方法=競技는 『레이쓰』로 行하고 採點은 一等五點、二等四點、三等三點、四等二點、五等一點(但 繼走는 倍數로서 採點)
▲競技種目=五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一萬米 二千米繼走

鴨綠江링크서 朝滿對抗

來三十日에開催

제三회 朝鮮對滿洲 氷上對抗戰은 來三十日 鴨綠江링크에서 擧行하기로決定하고 滿洲側에서 出場選手는 男子十名、女子六名을 選拔하엿는데 安東縣에서男子一名 女子二名이 出場할터이며 其他는 奉天、撫順、大連等地에서 出場하기로 되엿다 朝鮮側出場選手는 오는二十二日에 朝鮮氷上聯盟主催의 第一回大會에서 男子五名을選拔하고 札幌遠征選手의歸京을기다려 十名을 決定하기로되엿스며 女子選手는 二十三日의 女子全鮮氷上大會에서 數名을選拔할 豫定이라한다

滿洲綠林出身 大賊餘罪尙多

기보=작년십이월 이십삼일본정서에 체포된 만주록림(綠林)출신의 『때파ー트』전문적 강의령(姜義烈)(三□)은 그후취조에따라 종로(鍾路)화신(和信)에서만 『금강크로ー스』가방등 열세개나훔친것을 자백하엿스며 기타 쥐덫 목도리두개 양복감등 각전당포에서 차저온장품으로 팔월본정서형사실은 완연히 구멍가개가되여잇섯다한다 버린것가티

列車와自轉車衝突

【釜山】지난륙일 오전십시반경에부산행(釜山行)제사렬차가 남시역(南市驛)을 출발하야 진행중 경성기점사백삼십구키로륙백팔십오미돌지점의 길목에서 렬차와 자전거가충돌되여 자전차를탄사람은 즉사하고 말엇다는데 이로인하야 렬차는십분가량느젓스며 괴해자의 신원은조사중이라한다

사랑의씨버린 罪의어머니

경찰에잡혀류치장신세

사나이ン 一吹必殺

경치운 류치장 생활까지 하게된 비극한토막—— 이주이봉은 보령을 충남공주군탄천면 국동리(忠南公州郡灘川面菊洞里)에둔 리윤례(李允禮)(三□)로 작년일월에 부내 동빙고정(東氷庫町)에 사는 심옥룡(沈玉龍)(三□)이와 서로사랑하는 사이가되여 지내오든중 뜻밧게 작년팔월경에 어린애를 낫케되엿다 그때로부터 정부의 배척을밧게되야 사랑을 일허버린그는할수업시 자살을하랴고 한강으로어린애를 등에업고 나와다 그때마츰 부내동빙고정 삼십팔번지(東氷庫町)심윤(沈允)의처방씨(方氏)(三□)가 발견하야 그리유를듯고 그를동정하야 어린아이를 길러주겟다하야 다리고갓스나 생활난에 할수업시 작년팔월사일 오후일곱시쯤 서빙고정륙십오번지의 압헤 버리게된것이다 이래룡산서에서 범인을엄탐중이든바 최근에이르러 정기리윤례와 방씨의 소행인것이판명되엿다한다 그리하야 그들두여인은 치운류치장 신세를지고잇다한다 절도정부로부터 버림을바든미묘의중년녀자가 사랑의씨를 안고사실의 길을 헤매이다가 필

天氣豫報

槪況 優勢한 高氣壓은 變함업시 蒙古에잇서서 滿洲와朝鮮에로 移動되고잇다 이곳으로부터 氣壓은漸次로 千島方面에 야러저잇스나 朝鮮은大體로 日氣가晴明하며 中江鎭 黃海道西岸 全南沿岸에는 小雪이잇다 滿洲는晴 裏日本은흐리여 處處에小雪이잇스나 太平洋岸은晴明하다 日本內地는 北海道 樺太 南西諸島 臺灣等은 흐리다 明日은때때로 흐릴터이나 大體로 日氣는良好하며 치웁다

豫報 오늘밤과明日은 晴雲相伴이다 京畿道全區도以上과 갓다

昨日最高	零下九度八
同 最低	零下十六度
今朝最低	零下十七度七
今日正午	零下十二度六

9日ヨリ M・G・M 超特作

來れ少年諸君よ!! 亦父兄姉よ!!

血沸き肉躍る海洋名篇 M・G・M社豪快無双文藝巨篇の登場!

心のいぢけた富豪の少年を渺茫果しなき大海原の舞台に立たせて海國男子の壮絶なる意氣を見せ……豪快無双の船長・闘志火を吐く快男子の登場!怒り狂ふ嵐の海原に展開するドラマ大スペクタクル巨弾篇!此れぞ京城のファン否少年諸君の胸を躍らすであらう

我は海の子

CAPTAINS COURAGEOUS

松竹大船母性愛巨篇

母の勝利

監督 齋藤寅次郎

世に多く見る齋藤得意の人情譚

坪内美子 坂本武 忍節子 近衛敏明 突貫小僧 若水絹子 共演

東日・朝日・讀賣 特報ニュース

明治座

大學病院模範方劑

어린애와어른에게는 가제노고

かぜピリン

感冒頭痛 完全解熱劑

KAZEPIRIN

赤玉圓勝丸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旭町一丁目

明三葉クルミ洗粉 살거칠게방지하는 손에

金儲 新發明特許機械 製氷機 製菓機 延糸機 カタログ呈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垣機械製作所

朝報案內

藥劑師 急募 今年十五日まで 京城府壽町一丁目 三陽商會

採用 至急 給仕 中央俱樂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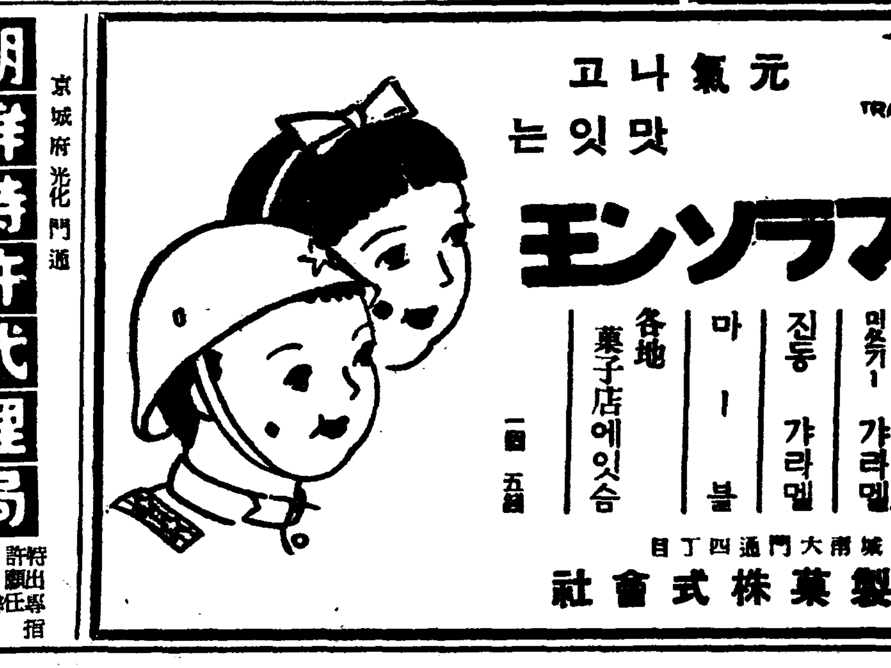
事務所長急募 新年度開所 朝鮮各地 京城府 金町三ノ三 昭和生命

科喉咽鼻耳姜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三七一〇番 備完室院入

カメラと材料 京城本町一丁目 岩瀬寫眞機店 電話本五五七・五五七

淸化れ 京城藥局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府光化門通 電話光二四七一番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出願 專任辨理士 指導相談



元氣나고 맛잇는 マラソン モ TRADE MARK

地球標印의 各種 비스겟도 밀크ー 캬라멜 진둥 캬라멜 마ー블 各地 菓子店에잇슴 一函五錢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豊國製菓株式會社

警察官(鮮満合部全書) 鮮満警察學會

新年大奉仕

珍貴·神秘·高貴名藥

秦始皇補藥 無料進呈

三千宮女를 사랑하든 秦始皇이 服用하든補藥은果然무엇이엿슬가?

先着一萬人限 秦始皇補藥 一劑五十回分式 無料添呈

●平和堂이 아니고는하지못할 大英斷的 大奉仕! 秘中秘로 九重宮闕에秘藏되엿든 秦始皇補藥을 發見하야· 新年奉仕로 一劑(五十回分)式 無料進呈합니다 驚歎又驚歎의千古名藥! 絕好의機會를 일치말고 即時試服하시요 (下段參照)

帝国大學 工學部에서 新發見

秦始皇補藥은果然어떤것인가

二千年前九重宮闕의秘中秘로永遠히秘藏되엿든 그秘方은드되어 帝國大學에서發見!

萬里長城을굿게싸코、萬卷詩書를불사르고天下를 呼令하며 三千宮女를 사랑하든萬古의大英傑!

●그도 長生不死가 最大所願,天下의 不死藥을求하려고 侍臣徐福을식히여 童男童女五百人을 東國에보내는等 科學的研究 神秘的祈禱 千辛萬苦로求한바 그神秘方은嗚呼라!遺憾이여! 그後人類愛를爲하야 世上에發表되지아니하고 九重宮闕에永遠히秘藏되고 마럿든것입니다

●今般帝國大學工學部碩學의손에 秦始皇古文獻數百卷을 涉獵苦心研究調查한 結果 時代正히健康第一을高唱하는이때 마츰내白日之下에 遂發見되여 億萬人生의熱狂的歡迎을 밧게되엿슴니다

●本社는 이天惠의神秘名藥을 天下에頒布키爲하야 即時現代人에適合토록複方으로 製造하야「正氣速補散」이란名稱으로 當局에許可를受하야 其間數萬服藥家에게 試用分을無料頒布하엿바 모다 그非常卓越한効力에歎服하고잇습니다

●今番本社는 特히新年大奉仕로 百補丸을注文하시는 人士一萬人께限하야 千古秘藏의 이名藥一劑식(五十分回)을無料添呈하기로 大英斷的大奉仕를斷行하오니 健康한사람이나 虛弱한사람이나 千載의 好機會를일치말고 天惠의珍貴한선물을밧기바라나이다

千金으로不換할 秦始皇補藥의內容

●非常한 腎氣强化 무루特効劑!

神秘方 秦始皇補藥의 內容은 모다非凡한藥材들이며 卓越한 精力增進劑로腎氣强化 무루特効劑임에는 놀나지안을수 업슬뿐아니라 그効力이 神通可驚한것은 다시疑心할餘地도업습니다

●더욱이 大補元氣劑 百補丸과 秦始皇補藥을兼用하면 陰陽과氣血이雙補되여 白髮老年도 無限한 精力이湧出함으로 本社가秦始皇補藥을正式發賣하기前에 今般特히 百補丸愛用家에게 一々히無代添呈하야實彈的廣告를하는것입니다 百補丸은 人體의 五臟六腑를完補하고 元氣와氣血을 大補하야 人體基根을 强健케하며 秦始皇補藥은 主로强腎强精 補陽劑임으로 百補丸과此藥을 兼用하면坐陰坐陽 左右兼全 用之不竭하야 驚歎의眞効를엇게됩니다

秦始皇補藥 無料進呈規定

一、本社新年大奉仕로百補丸一劑注文하시는人士마다 秦始皇補藥一劑(五十回分)을 無料添呈함

二、無料進呈은先着一萬人限임으로機會를일치말고 남보다먼저注文하시오

三、注文書에는必히新年奉仕注文書라고쓰시오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大補元氣! 能治百病! 補血强壯劑로天下第一!

一、洋藥 漢藥을 勿論하고 世上에許多한 補藥中에 百補丸가치 特効한藥은 다시업슴니다 여것은 百補丸이 朝野各界貴族名士를비롯하야 數萬服藥家의 不斷한愛用과 最大의賞讚을밧는點과 朝鮮藥業界有史以來 百補丸의 最高의 賣上記錄을 突破하고잇는點、平和堂이 藥業界에 뚜렷한存在로서 二十年 來絕對効力과 信用本位로 業蹟을싸아온點、朝鮮에서하나밧게업는 最新科學的機械의 大設備로藥品을精製 法製하는點(和信落成紀念館四層에서 百萬名來客에게 公開製造하엿슴) 等으로보아 百補丸이 어떠한藥보다도 斷然 信用잇고 効力이卓越한것은 明若觀火한眞事實입니다

二、特히百補丸은 獨特한綜合作用에依하야 全身히五臟六腑를 完全히補하야 衰弱한身體를 强健케하며 陽氣不足、消化不良、神經衰弱、貧血、肺弱等의慢性病을 原因的으로 根治할뿐아니라 特히大補元氣補陰、補陽、氣血雙補하야 감기와 제증을 모르고 陽氣自興 用之不渴하야 房事過度를 모르게 됩니다 더욱이 只今 百補丸一劑마다 秦始皇補藥一劑五十回分式 無料進呈하는 이때를일치말고 即時注文服用하시요。

자랑하는百補丸의効力!

一、氣血이 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 창백하고 全身이 衰弱한분

一、性慾이 줄고 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 肢節腰痛으로 고생하는분

一、口味가 업고 消化不良과 체증 속병등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 不足하고 元氣와 活氣가 업고 허리가 압흐고 四肢가 勞困한분

一、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 무겁고 精神이 흐리고 記憶力이 不足한분은 早老할 症狀이요 長壽못할 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 服用하여 싱싱한 青春이 되시요

一、筋骨이 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 생기고 順借力이 됩니다

一、消化不良、체증、속병자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 업서짐니다

一、눈이 밝어지고 精神이 조와지고 皮膚가 윤택하고 血色이 조와집니다

一、全身 五장六부를 다 잘 補하야 참말 完全히 陰陽雙補하야 體重이 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飲過色人 ホルモン不足으로 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 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絕倫하야 一生을 無病健康한 몸으로 不老長壽할수 잇습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 淋疾도 消滅됩니다

藥價 一劑 特價 十圓、重用 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婦人百補丸

調経胎胎·補血强壯 代々孫孫·鉄血子女

●藥價一劑七圓·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人生의再逢春、無病、健康、長壽가 모다百補丸으로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 電光六三二一番·三三〇番·振替五番

少年朝鮮日報

보십시요
동화, 작문, 동요, 그리고 재미잇는 이야기 과학이야기 이외에 자미스러운 일이 생길적마다 보내주십시요

과학적으로따저본 호랑이에대한속담
그럴드시 맛는것이 만허요

네로부터 호랑이에 대한 속담이 만습니다. 그런 속담을 과학으로 따저 보는 것도 재미잇는 일입니다.

(1) 호랑이도제 새끼둔골을두남둔다.

호랑이는 새끼를 밴지 백일쯤 되면 두마리로부터 여섯마리까지의 새끼를 낫습니다. 그 새끼가 다크도록까지는 삼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어미호랑이가 데리고 다닙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조 굉장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굴에도 전드리기 어려운것이 새끼달린 호랑이랍니다.

(2) 새벽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호랑이는 성질이 흉악스럽고 힘이 세어서 황소가튼것도 물어죽이고 사람한테도 덤비지만은 결상은 사람을 피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처다보면 호랑이가 잘 대들지를 못한다는 녯말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다죽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이난다고 고만 허둥지둥하는 것이 말입니다.

(3) 호랑이는하로에 천리ㅅ길을것는다.

사실로 거름을 빨리 걸어서 먹을것을 차저서는 먼데까지 나갑니다. 거름도 빠르고 허니와 휘염도 잘처서 원산서 초간하게 떨어저 잇는 섬에까지 호랑이가 휘염처 오기때문에 그 섬을 호도(虎島)라고 이름 지엇답니다.

(4) 호랑이는죽은뒤껍질을남긴다

(5) 호랑이의수염을뽑는셈

호랑이는 고기는 맛이 나뿌지만은 정길은 아조 비싸게 팔립니다. 더구나 호피는 여러가지의 미신으로 존귀하게 칩니다. 호랑이의 위엄은 반너머 그수염에 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도 그 수염을 대단히 여기고 잇습니다.

(6) 자는 호랑이 코침 주기

호랑이는 그대로 노하두면 사람을 피하지만은 한번 덧드리어 노흐면 흉폭하게 덤빕니다. 더구나 가만히 잇는것을 덧드리엇다가는 큰 일입니다.

우슴단지

큰애기작은애기

리면 曾祖파상으로이기면자지. 이번엔 흥흥흥후 따주보고를 러안즈시지요 꽁그랑이 曾祖옷 흥흥 안즈시지요 그리다음엔 뎅먼저 아무아무나 두팔을들어

모르는것

선생님「무엇이던지 모르는것이 잇거던 무러라」
생도「선생님눈섭이몃개입니까」
선생님「이녀석 그런것을 왜무러!」
조선어책에서 모르는것이 잇스면 무르란말이다」
생도「네 그러면 이책에 글자가 모두 몃자나 들어잇습니까」
선생님「……」

무엇사려왓나

어떤 가게에 이웃집아이가 기웃하고 드려다보니까
주인「너무엇사려왓니 걱정도 사려왓니?」
아이「아니요」
주인「그럼 과자사려왓냐」
아이「아니요」
주인「그럼수박사려왓냐」
아이「아니요」
주인「그럼 너는 무엇을사려왓늬」
아이「시계보려왓서요」
주인「……」

히유내실

이러케자미잇게 노라보세요

任 元 鎬

일천동무 일만동무 머리칼에 엉킨동무. 기쁜설날입니다 건너마을 할머님댁 고개넘어 아저씨댁 동내방내 어른들께 세배 다녀오셧습니까? 빨강달강 고은설빔 때묻혀 팽장하군요 밤대추 곶사과 호두잣석건 부름이 펴두만 쿤요 그래 그만흐든것을 그냥 먹어주시렵니까? 우리동무한방갓득 모히엇스니 새록새록 재미나는 노리로 흥흥호 재미나게 놀아가며 남남남 재미나게 먹어먹어 냅시다요 네!

돌려라돌려라

수만동무 네편내편 편짜서 루마주 나란히 늘어안저요 그리고는 곶다섯개 사파다섯개 수건(보재기)는 풀을 내여서 양쪽편 맨끄테 안치사람 아페다노아둡니다 내놋는 곶사파는 동무끼리주먹을내도조코 그누가 호저내도 상관업지요 그리다음엔「요一땡!」으로 돌려라 돌려라하며 시작입니다. 이것은 곶이나 사파를 양편이 똑가치 수건에 싸서 다음사람에게 돌리고 싸서돌리면 다음은 바더서 풀러서 그다음으로 돌리고 풀러서 돌리면 그다음은 바더서 또 싸서 고다음으로 돌리고 연一섯 이래 나종사람까지 먼저 꿋나는편이 이기는것입니다 이라노라면 엄벙덤벙 서루 서드노라얼결에 곶사파가 데굴데굴 굴르리고 법에도 하나.

노라면 가다가 돌리는수가잇습니다 정신이섞갈려 조一고마케 원을 맨들걸 커一드라케 맨들라고도 합니다 이러케 돌리는 사람은 벌을써야됩니다 잡아이르켜세우고 빨강빨강 얼굴에다 연지곤지를 찍어주시지요一이마에도 하나 양쪽볼에도하나그리고

눈아페다 조一고마케 원(빵그람이)을 맨들며『큰애기』 그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팔로 커一드라케 원을 맨들며『작은애기』그라고 그다음은 또다시조고마케 원을맨들며『큰애기』… 다음다음 이러케 돌려가며 하다가 돌리는수가잇습

소년과화

거울맨드는법

거울은 엇더케해서 맨드는지 아십니까

유리에 아조보드러운가루를부려서 닥고 그다음에는 증류수(蒸溜水)로씻습니다 조곰이라도 기름기가 잇던지 때가 무더잇스면 못씀니다 깨끗하게되면 요번에는 초산은(硝酸銀)이라는 약을칠합니다 초산은이라는 것을칠하면 유리를 통해드러오는광선이 전부초산은에 부다처서 반사되므로 사람의얼굴이나 물건이 빗치게 됩니다

거울판뒤에는 반드시 시 운이라고하는 붉은것이 칠해저잇습니다

이것은초산은이 벗겨지지 말도록하기위하야 니스라는 약을칠하고 그우에파마단(光明丹)이라는 펭기를칠한것입니다

이리하야 거울판이되면이번에는 거울보소리를 잘라 둥고 가라야합니다 거울보소리를 가는데는 금강사(金剛砂)라는 숫돌이 잇습니다 제대로 작고둘도록 만드러노흔 숫돌입니다

가라서는 바르라는것으로 닥거서 광채가나게 합니다 이러케된 거울판은 이제테만끼우면 거울이됩니다 테는 닉켈 세루로이드 나무 등 여러가지잇스나 어떤것은 마분지로된것도 잇습니다

이리하야 버것한거울이되여집니다. 사진은 거울맨드는공장이니 이것을 따라 차례로보시면아실니다.

童話

아름다운악수

金 銀 星

아침부터 힌눈이 펑펑쏘다저 잠깐새에 왼마을을 하야케 더펏습니다.

보기조케 쏘다지든 눈도 저녁때가 되니까 고만끄티고 이따금 찬바람만이 부러왓습니다.

수길이는 학교에서 동무들과 가치 눈싸홈 작난을 하느라고 늣게야 집으로도라오게 되엿습니다.

수길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도라오려면은 큰고개를 하나 넘어야합니다.

그런대 이고개는 어찌도 놉든지 해마다 겨울이 오면 눈이싸혀서 미끄러워 이 고개를 넘어다니는 아이들은 고생이 여간아니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눈이싸혀서 수길이는 속으로 념려를하면서 이고개를 넘게되엿습니다.

눈이싸힌 언덕비탈을 억지로 넘으려는데 『사람살려주세요』하는소리가 들렷습니다 수길이는 깜짝놀래서 사방을 휘휘둘러보앗습니다.

그러나 아모도 눈에 보히지안엇습니다.

다시한번 차저보니까 낫모르는소년이 눈구덩이에빠저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잇섯습니다.

그리하야 수길이는 얼른 그소년을 구하야주엇습니다

『대단 고맙다 일홈은무엇이냐』

『온 별말을 다한다』

『일홈이 무어야』

『일홈까지 알것업다』

눈구멍이에 빠진그소년은 구해주어서 너무나 고마워 일홈을 알려달나고 하엿습니다 그러나 수길이는 그까짓것을 무엇이 고마우냐하면서 일홈을알리지안코헤여젓습니다

×

『아니 어떠케된셈이냐 응』

어머님은 길성이를 보시며 깜짝 놀라시엿습니다 옷이모다 흙이무더든것입니다.

『응? 눈구덩이에 빠젓섯다우』

『그래서』

『그래서 서강보통학교삼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구해주엇다우』

『일홈이 무엇이냐?』

『일홈은 안가르처주겟지』

『그러면 내일 나하고 가티 고맙다는 치하를 하러가자』

『네―』하고 길성이는 선뜻대답햇습니다.

그이튿날 오정때쯤 길성이는 어머님과가티 서강보통학교를갓습니다 그래서삼학년담임선생님을 차저만낫섯습니다.

『사실은……』하고 길성어머님은 길성이를 대신하야 말슴하섯습니다.

『얘가 어제 고개밋 눈구덩이에 쓰러진것을삼학년에가 구해주엇다구 해서 그애에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려고 하오니 좀 차저주실수업겟습니까?』

『네―그러얼이잇섯읍니까』하시며 담임선생님은 차저보러가셧습니다. 길성이는 선생님뒤를따라나오는 수길이를보고서 반가워하며 『어제는 대단고마웟섯다』하고 친절히 인사하엿습니다.

『아니 별말을다한다』하고 수길이도 부끄러운듯이 고개숙여답례하엿습니다.

『저도이제야알엇습니다 훌륭한 아이입니다』선생님은 벙글벙글우스시며 길성이에게

『입부터 여기까지차저와서 례를하는너도 훌륭한아이다 다가티 놀이서 악수를하고 다음부터 친하게지내여라』

『네……』그곳에서 수길이와 길성이는 힘잇는 악수를하엿습니다. (끗)

謹賀新年

戊寅 元旦

川內里
現道議員 李秉協
文川郡雲林面龍塘里 黃仁煥
文川郡雲林面公立普通學校 徐鍋倍
川內里市 北鮮酒造指定販賣所 韓大敎
川內里市 二和商店 崔秉俊 朴命俊
川內里市 申彥根
郡草公立普通學校 校長 梅森潔
川內里市 東生醫院 李啓爵
川內里驛 遠藤武夫
文川郡 雲林面職員一同
雲林普通學校 康亨鎭
川內里市 柳阿只
川內里市 李東煥
川內里市 中央麵屋 全興植
川內里市 李眞均
川內里市 金鍊院
川內里市 永興商店 李秉雲
川內里市 鍾路堂時計店 申成虎
川內里市 白花商店 李德淳
川內里市 朴鳳七
川內里市 楊瑞山
川內里市 李聖均
文川郡雲林面新倉市 安允用
文川郡雲林面新豐里 金鷹瑞
文川郡雲林面新豐里 朴都根
文川郡雲林面新倉市 新興旅館 金文浩
文川郡草面龍塘里 龍興商店 金昌祚
文川郡川內里市 和信連鎖店
文川郡川內里郵便所長 猪原萬作
川內里市 朝日自轉車商店
川內里市 趙尙蘭
文川郡草面龍塘里 趙杏元
文川郡草面龍塘里 張鷹琳
文川郡雲林面新倉市 金明善
文川郡雲林面新倉市 金仁奎
文川郡草面龍塘里 金陽根
文川郡川內里 金秉柱

川內里朝鮮日報社分局
顧問 鄭㮒朴 總務 鄭浮達 記者 局長 夏洙 寬和

鐵山
扶西金鑛事務所 李元甲
自宅鐵山邑內 電話十七番

東垣醫院 李翊恒
和信連鎖鐵山百貨店 金仲俊
鐵山郡廳
鐵山漁業組合職員一同
中央麵店 鄭學永
平安食堂
鐵山面職員一同

朝鮮日報社鐵山支局
支局長 盧林李 顧問 義炳元 局員 明斗甲 一同

光東醫院 金洛瑜
扶永醫院 鄭忠源
御春館 吳亨三
新綠館 李貞祿
永春館 鄭皓永
栢梁面 私立光成學校 職員一同

永川
大本山銀海寺
曹圭燮 曹圭信
慶北永川邑 李禎容洋品店 電話五八番
永川邑 料理 東山亭
永川穀物商組合 電話四八番
永川邑 官公吏一同
永川邑 面長一同
永川邑 綢緞布木 金利坤商店 電話二四番
鄭淵浩 鄭東鳳
永川郡新寧 雉山酒造場 金龍範
新寧 金暢淑
永川邑 材木商 朴海根 電話大番

永川邑 曺由煥
永川邑 李星根
永川邑 朝陽醫院 東光醫院
琴川 殷宗杓
華北 婦人良藥 楊膺祚
琴湖驛前 楊達祚藥局
靈芝寺 主持 車應俊
大昌 盧在允
永川郡淸通面 淸通酒造場
新寧 李石出
新寧 安太元
新寧 李萬德
永川邑 尹聖永
永川邑 沈坤伊
華北 學校評議員 權寧植
永川邑 白米雜穀 文孝彬
永川邑 安在玉
永川邑 中華料理 東明館
永川邑 綢緞布木 申明達
永川邑 權五龍
永川邑 海陸物産委託賣買 金東德支店 電話一五番
淸通 田任達
林浦驛 鄭容和
琴湖 琴昌醫院
古鏡 趙鍾九
三昌 曺箕煥
琴湖水利組合 理事 李沅珪
琴湖穀物組合
慈川 金英大
大昌 材木商 崔周鳳

利原
永川邑 鄭海鎭
利原邑官民有志一同
咸南利原邑內 和信連鎖 韓仁秀商店
利原邑 春山醫院長 徐康郁
利原合資釀酒所
利原面梨谷里 面協議員 李興益
利原文昌普通學校 校長 姜彰秀
利原興新學校
利原郡校東西洞前 功勞片手 朴瑞漢
利原郡東面 朱龍瑞
利原邑內 尹正允商店
安州面 區長 崔周一
利原郡東面 財務 姜顯奇

咸平
咸平 道會議員 李化汝
李載爀
醫師 韓泰洙

方峴
平北龜城郡方峴面下丹洞 龜城水利組合
方峴郵便所 職員一同
平北方峴市 三協商會
平北方峴市 天明堂時計店 李贊模
平北龜城郡方峴面 許日星
平北道會議員 張應範
非常時欠禮
平北方峴市 信一商會
平北方峴市 南市釀酒社
平北方峴市 新興商會
龜城郡方峴面 職員一同
壽斯醫院

慈城
平北方峴市 高級洋服附屬品一式 サービス洋服店 許亨則
平北龜城郡方峴面 第一醫院 醫師 張達浩
平北方峴市 李在鶴
龜城郡方峴面大安洞 康鳳來
平北方峴市 平和商會
平北方峴市 大東商會
平北方峴市 金應球
平北方峴市 東洋自轉車店
龜城郡南市 司法書士 張錫崇
平北方峴市 定信商會
平北方峴市 申基善
平北方峴市 永昌商會
平北慈城邑內 安福樓

趣味論

趣味와理論의乖離 (二)

崔載瑞

趣味를 歷史的으로 變遷시킬수잇슴은 그것에 變化性이잇기때문이다。趣味라면 依例히 變化性을聯想하리만콤 그것은 趣味의特性이되여잇다。地域的으로 或은時間的으로 趣味는變化한다。그리고 가장重大한 事實은 個人의趣味가 進化한다는事實이다。個人의趣味는 退化하야 低俗하게될수도잇는同時에 進化하야 洗練될수도잇다。엇던時代 엇던나라를 勿論하고 敎養은 이趣味의 洗練을 向하야 努力 되여왓다 그러면 趣味의洗練이란 무슨事實을 指示함인가?

암서 趣味는 辨別하는精神機能이라하얏다。짜고매운것을 가리는 單純한데서부터 藝術의眞價를 鑑賞하는 複雜한데이르기까지 趣味는 辨別의精神機能이다 그런데 辨別하라면 比較가 잇서야겟다。엇던물건을 先在物과 比較하는데서 辨別은생겨난다 比較에잇서서는 先在物이란 標準이다 即 엇던標準과 比較乃至對照하야 새로운물건을判斷하는것이 趣味이다。그러나 趣味에는 반듯이好惡의感情이相伴한다。先在의標準과 比較하야 그것을 더욱조와하든가 시러하든가 비슷하다고생각하든가 何如튼 거기에 떠强烈한主觀的嗜好性이 움즈기고잇다。이리해서 比較 辨別吟味는 趣味의 全過程을 이룬다。

이것이 科學的判斷과 다른點은 趣味의機能이 推理的이아니라 直觀的이고 또 그結果에對하야 好惡의感情을 이르키는데잇다。실상 趣味作用에잇서 우리는 比較와判斷의 諸階段을 意識치안흐리만콤 그作用은 直觀的이다 文學的判斷(이것은 趣味의記述的名稱이다)에잇서 重大한것은 그 푸로세스가아니라 그出發點—即 判斷標準이다。이리하야 趣味라면 判斷의푸로세스가아니라 그푸로세스가 여러번 蓄積된結果로 形成되야잇는 判斷標準을 가라치게쯤되엿다。趣味가 豊富한사람이라면 人事百般에對하야 判斷을 그릇치지안흘만한 精神的能力을 가라치기보다는 그判斷의 標準이될만한 學識、經驗、敎養을 豊富히 蓄積하고잇는사람을 가라치게된은 이까닭이다。

이야기를 文學的趣味에限한다면 文學作品을읽고 얼른 그리고 똑바로 그眞價를 아라내는사람이면 그는 文學에對한趣味를 가진사람이다。그러나 慣用的意味에잇서 文學的趣味家는 文學에對한敎養이 豊富한사람을 말하게되는데 그것은 文學的判斷에잇서 그標準이重大한關係를 가지기 때문이다。그리고 文學的判斷의標準이란 具體的으론 古典가운데에 求하는수밧게 道理가 업다。한번도 文學作品을 읽지못한사람에서 우리는 文學的趣味를 想像할수는업다。文學的趣味는 少年이 第一처음 손에드는 作品으로부터 胚胎된다 最初의 作品을읽기前의 그의意識은 文學的으로는 渾沌한意識界라고할수잇다。이渾沌한意識界는 文學作品을읽음으로말미아마 엇던感動을바덧고(不幸이도그感動은 大部分甘美的이지만)그感動이 强力이되야 漠然하나마 엇던秩序가 形成된다。

그러나 어少年이 두번재 文學作品을읽을때 그의意識은 발서 渾沌이아니라 一種의秩序를 가진 有機體이다。그前번作品과 比較乃至對照하야 새作品을 鑑賞하고 或은判斷하야 好惡의感情을이르키고 이것이記憶에 把住된다면 그것은 발서 幼稚하나마 그少年의 文學的趣味가된다。

勿論 趣味의根源을 習冊에만 둔다는것은 몹시 메마른일이다。文學的趣味를 養成하는데는 自然도잇고 人生의實際生活도잇다。實生活의經驗 이것들이 더욱 重要한要素가 될지도 모른다。그러치만 文學作品이라는 直接的要素가 업다면 이모든要素가 엇지文學的趣味에까지 結合될가? 畢竟 中心은 역시 作品에잇다。過去에읽은 모든作品과 및 그作品을通하야 流入한 모든要素가 結局 사람의文學的趣味를 形成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點에注意할必要가잇다 첫재는 趣味와 意識의 關係이고 둘재는 趣味와秩序의 問題이다。文學的趣味는 文學的作品에서 出發되는것은事實이지만 더러더 作品을 만이읽는다고 趣味가 形成되는것은아니다。作品數와趣味는 不充分하다든가(少年이 넘우도 어려운作品을읽어 理解치못햇슬境遇) 作品을 全然非文學的인 目的으로 읽는다가해서 (學生이 受驗準備로 古典을 工夫햇슬境遇) 그讀者의意識에 아모런影響도 주지못한다면 거기서文學的趣味는자라날수업다。새作品이 남은 意識秩序에드러와서 어떤程度 나의變化를이르키고 그結果로 修正을바든意識秩序는 그사람의心的스테이타스・쿠오(現狀)가되야 다음번作品에對한 趣味的判斷標準이되지안허서는 趣味라고할수는업다。이때에 作品以外에 모든要素가드러와 文學的聯想을組織하는것은 압서도 말한바와갓다

動物界의武器

그生存意識과各樣態 (下)

兪莞昌

(마) 擬勢의動物

이動物도亦是 自身에는 아모 實力도 武力도 업스면서도 恨中에는 武器를 隱蔽한것가티 假裝或은 虛勢를 피여恐喝手段으로써 他를威脅하는同時에 自己의 危難을 避하는것이다 例를들면 Cerura라稱하는蛾類의 幼虫은 頭部及 顔面에 赤黑等色彩의 班紋의 怪態를 形成하야 殺氣가 騰騰한 氣象을 表示하고 尾部에는 有毒針과如한 毒狀毛를 내두르며 毒液이잇는듯키 敵을威脅하는것이다 北米產 Bombyx regia라 稱하는 蛾類의 幼虫은 頭部에 數多한 赤色突起를 林生하야 左右로亂揮하면서 敵을恐喝하는것이니 이러한種類의 動物은 外態의奇觀을武器로 自我의 安全을圖謀하는것이다

(바) 假裝의方法

이動物은 自己體軀에다異物體를附着시켜서 安全을期하는것이니 即假裝으로써自己의正體를 隱蔽하는것이다 이는아모리 動物이라도 奇異타아니할수업다 例를들면 軟體動物의 一種(Xenophora)이라는 動物은 自己貝殼에 他의死貝○小礫等을 附着시켜서 變裝生活을 營爲하는것이다 或種의蛾類의幼虫은 自己體의表面에다 塵芥 枯枝等을 ○着시키는方法을利用하고 "海綿蟹"는 體面에다 海綿海藻等을 附着시켜 自己의體形을 遮蔽하나니 어動物의特長은 變裝術을 巧妙하게 利用하는데 잇는것이다

(사) 擬死의方法

外敵의攻擊或은 來襲에 遭遇될時에는 俄然死態를 擬裝하고活動을 停止하엿다가 敵의態度가 緩和되는틈을타서 即敵의 放心하는틈을타서 脫走하야 危厄을免하는것이니 昆蟲類中에는 이方法을 利用하는種類가 頗多하다 우리가 日常經驗하는 好例로는 蜘蛛(거미)가外物의 觸擊을바들時에 腹面을 위로向하야 臥死狀態를 擬裝하엿다가 敵의放心하는틈을타서 忽然脫走하는것이다

(자) 音聲의方法

鳥類의大部分은 危急한刹那에 逢着하엿을時에는 鳴聲으로써 서로 危險을 信號하야 危難의 絕迫을 알니는것이다

上述과如히 動物도 自身의生命을 保全하는데는 亦是各種의武器를 適當하게 使用하나니우리人間生活도 亦然하다고 生覺되는點이 만 ㅎ이다 以上으로主로動物에對하야 論述하엿거니와 植物에잇어서도 亦是如此한 現象을 볼수잇는것이다

小文庫

周나라時代의 二重過歲

笑山生

陰陽曆의 二重過歲는 最近 우리社會의 적지안한弊風으로서 年來 그廢止가시끄럽게 떠드러온 問題지만은 二重過歲란 奇怪한現象은 녯날 周時에도 엇지안흔것으로서 決코 지금우리에게서 처음생긴것이 아니다

本來 한해나 두해나하는『해』라는말을 夏에서는『歲』殷에서는『祀』周에서는『年』이라고햇는데 周는 自己네의『年』이 잇슴에不拘코 夏의『歲』를 兼用하얏든것이다。或해라는말은 달르더라도 夏殷周三代의 曆이 同一한 陰曆인데 어떠케 二重過歲가 되라고 疑心하겟지만은 夏의『歲』는 寅月로 歲首를삼고 周의『年』은 子月로歲首를삼는것이 다르다。알기쉽게 說明하자면 지금의陰曆으로 正月은 夏의正月이요 十一月이 周의正月이엇든것이다。어쨋서 周에서그와가치 曆을 二重으로 썻든지 그것은 알수업스나마 大臘 祭祀、田獵、迎春 迎寒가튼데는 夏의『歲』를 使用하고 그以外에만 自己네의『年』을 使用하엿다『歲』와『年』의 二重曆으로 因하야 그當時도 多少의 困難이 잇섯든 모냥이라 太史란 벼슬아치로 하야금 歲와 年을 바르게하는 獨特한 職責을 맛게 하얏섯다고 한다。그럼으로 周禮에는『歲十有二月』이란 句가 잇스니 여기서 歲라고 明記한것은 周의『年』으로서 十二月이 아니요 夏의 歲로서 十二月이라는 것을 明白하게 表示키爲함이다。或周에서는 따로이 曆을定치 안코서 夏의 曆을 그대로 쓴것이나 아닌가고 疑心하는 분도잇스나 閻東原은『周禮大史正歲年解』에 잇서서 二重曆의 使用이엇슴을 論證하얏다。孔子가 夏의 時를 쫏겟다고 한것도 실상 녯것을 復活시키겟다는 말이 아니요 現行되는 兩者中에서 그 어느편을 取한다는 뜻이다。그러케 夏의 時를 取한다는 孔子도 春秋를 지을 때는 夏의 曆을 쫏지 안한것으로 볼진댄 閻東原의 말과 가치 周時에 二重曆을 쓴 적이 確實한 듯하다。何如튼 歲와 年은 本來同一한 말이아니다。지금 그것이 同一하게 쓰이는 거기서도 二重曆을 쓰든 周時의 녯風俗이 엿보인다고 볼수 잇다

策略이得宜하면 一木도能支大厦

白癸의의十七과丑의十三은 頹勢挽回의巨礎石

前回에서 白十四가 午의十七로 올나서지안코 午의十八로 간것은 破格의甚한着이라고하엿지마는 黑十七이 午의十六으로 올라서매 白은 西角의 謀生之策으로 十八을 巳의十八로 끌고나갓다。이때 黑은 無事無慮히 十九番 辰의十八로 덥혓스나 이것이 失策인줄 뉘아리오 가령 西角의白이 長驅北進한다고 하드래도 그領土가 無足可觀이니 黑이辰의十八로덥지말고 卯의十七로 벌니면 白은 西角의 無根馬를 扶勢하기위해서도 寅의十四近處로 올라서지 아니치못할것이니 그때에 辰의十八로 덥허서 白으로하여곰 申의十八로 匍手하게하고나서 癸의十七로 羽翼을 벌렷드면 西北邊의 黑陣이 萬夫不當의 活氣를뛰는同時에 自家의 領土가 不勞而得으로 廣濶해질것인데 미리 辰의十八로 덥흐니 白은 自陣의 急勢보담먼저 黑陣의 虛勢를 衝擊하느라고 二十을 卯의十七로갓다 그러니 黑은 不得已二十一을 辰의十七로 充塡할수밧게업슴으로 그적새야 白은二十二를 申의十八로가서 黑一目을 取하면서 小形으로나마 完生하엿는데 이때 黑은先着을어더 二十三을 丑의十七로간것은 是 瞭當하지못하다。본래 辰의十八이 先後倒錯이라고 하엿지마는 旣往이러케되엿드래도 黑이 先着의機會를 가진 以上에는 먼저寅의十五로 着手하면 白은 終始 西邊의 自陣을위해서 寅의十三近處로應手하지 아니치못할것이니 그러거든 다시癸의十七로 벌니면 白卯의十七은 窮鼠와가티되는 同時에 黑의陣地는 依然히 廣大해질것이아닌가? 그런것을黑이 二十三을 丑의十七로 가니 白은 沈吟良久에 二十四 軍騎를 모라 勇躍 癸의十七로 드리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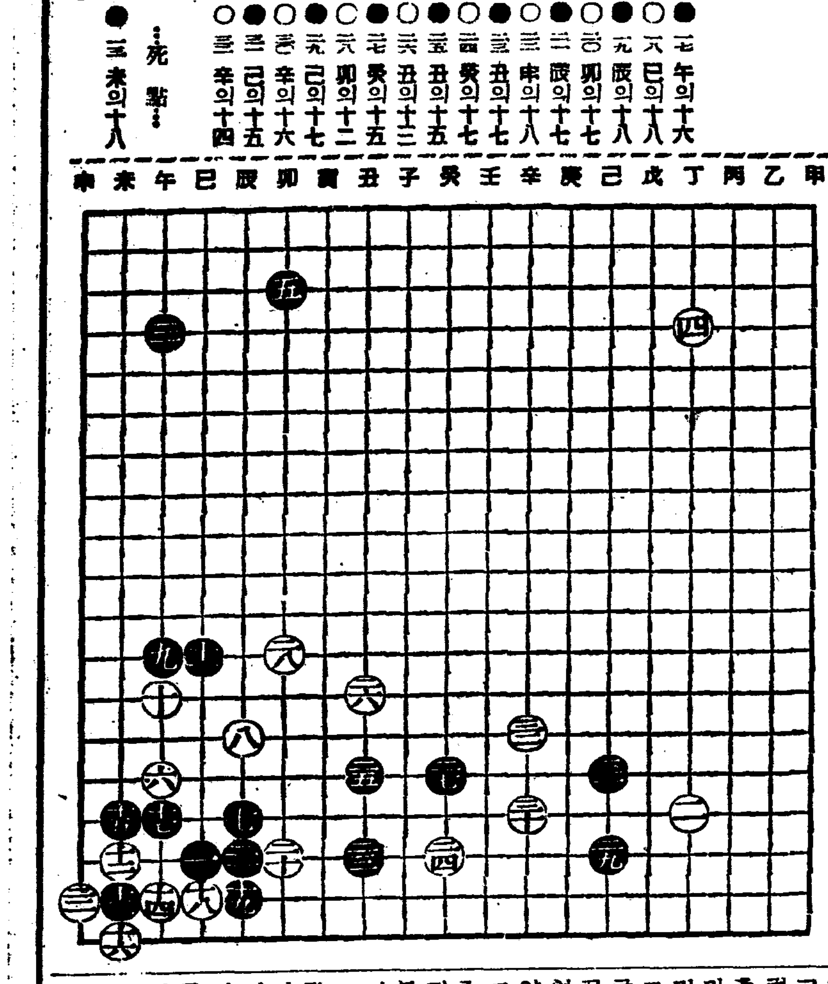
嗚呼라、史楚翁尙不老矣ㄴ저 將棋의 大厦를 一木이 能히 支撑하드시 前回의 配局에잇서 白에게 失意의氣色이 보이더니 이癸의十七 一目으로 말미아마 白에게 頹勢挽回의 氣運이새로 萌動하니 尋常한듯한 이癸의十七 一目이야말로 圓融老熟한境地에 이른일이아니면 엇지 能히 着想이나 할바일까? 이癸의十七에形勢洞察이 尋常치아니함을 看取한黑은 二十五를 丑의十五로 올러서니 得意의白은 二十六을 丑의十三으로 덥흐니 이亦是 癸의十七에 못지아니하다。黑은다시 二十七을 癸의十五로 덥흐매 白은 二十八을 우선卯의十二로가서 西邊馬의 中央連絡을 完全히하엿다。그러니 黑은 二十九를 巳의十七로가서 白癸의十七을 包圍하려하엿스나 白은 三十이 辛의十六으로 올라서니 天地恢弘에 何往不適이리오 黑은 다시 三十一을 巳의十五로 올나서나 白은 三十二를 辛의十四로 한거름 더압서니 局勢一變하게되엿다。果然 勝負의 [illegible]란 이것을 이름인가? (赤松子觀戰記)

本社獨占

國手爭霸譜 =(2)=

白 盧史楚
黑 丁奎春

● 一七 午의十六
○ 一八 巳의十八
● 一九 辰의十八
○ 二〇 卯의十七
● 二一 辰의十七
○ 二二 申의十八
● 二三 丑의十七
○ 二四 癸의十七
● 二五 丑의十五
○ 二六 丑의十三
● 二七 癸의十五
○ 二八 卯의十二
● 二九 巳의十七
○ 三〇 辛의十六
● 三一 巳의十五
○ 三二 辛의十四
…死點…
● 三三 未의十八



新刊紹介

▲高麗時報 新年特大號 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九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一部五錢

▲아이생활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基督敎報 第一四〇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活泉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illegible]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二五 [illegible]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新友 第六號 發行所 京城府錦町通二丁目 太田町號 新友社 振替京城二八一三八番 定價五錢

▲復活運動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孝子町五八 復活社 振替京城一一八七〇番 定價五錢

▲한글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珊瑚林 (詩集) 盧天命著 自畵像、바다에의鄕愁、校庭、숲을그림、도라오는길、菊花祭、夜馬車、나선거리、玉蜀黍、孤寂、夢多、曠野의노래、가을의感覺、湖口의밤、雜記、구름가더 等外數十篇、定價一圓 送料十六錢 販賣所 京城府堅志町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illegible] 創刊號 京城府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illegible] 第三十五號 (月二回) 發行所 平壤府東大院里八五 [illegible] 振替口座京城二六七九四番 定價一部五錢

▲[illegible] 第七十號(月二回) 發行所 京城府齋東町三一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八日(土曜)

◇午後六時라디오學校『作文은 어떠케지을까』 南基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朗讀 任貞順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運命에對하야』 金晋燮
◇同七時四〇分 時事解說 朝鮮日報 咸尙勳
◇同八時一〇分 (平)歌謠曲 一、臨川의處女 異河潤詩 田[illegible]曲(柳) 二、그리운故鄕 [illegible]詩 佐和輝譯曲(表) 三、靑春明朗譜 異河潤詩 全基鉉曲(柳) 四、흘러라洛東江 李扶風詩 金驥麟曲(表) 五、울고떠나간님 朴淚月詩 孫牧人曲(柳) 六、回想의哀調 李扶風詩 李基英曲(表) 表鳳天 柳善元 伴奏 平壤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三五分 京畿歌謠 一、勸杖歌 二、달거리 三、제비歌 申海中月 洪笑月

第一放送

◇午後六時(城)童話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京)講演
◇同八時(東)將士慰問夕

九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 管絃樂 交響曲 第七番A長調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포코·소·스데누ー토ー 뷔뷔ー체 第二樂章 알레그렛토 第三樂章 프레스토 第四樂章 알레그로·콘·브리오 管絃樂指揮 토스카니ー니 解說 任東爀
◇同六時 라듸오少年小說『外套』 金順禎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中樞院參議 韓圭復
◇同八時 新作小說『新話版春姬』 桂鎭作 朗讀 金鮮英 效果 南宮出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羽栗 四、邊界栗 五、編 徐山玉 伴奏 [illegible]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唱劇調 가、短歌感悟 曲 나、唱劇調 沈淸歌中젓비는데 金晴寶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一時 講演(新京)
◇同一時二〇分(大)舞臺劇
◇同六時(東)物語
◇同七時三〇分講演(臺北)
◇同八時(蘭)童歌
◇同八時一五分(東)日曜뉴ー스
◇同八時五五分(大)드라마

十日(月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白설기』
◇午後〇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沈淸歌中船人따라가는데 朴秋月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杖鼓 池龍九 『普通學校入學兒童에對하야』 惠化公普 尹享模
◇同六時 偉人이야기『一月에난偉人명분』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 『[illegible]』 李昌燮 金日坤
◇同八時一〇分 西道歌謠 一、小春香歌 二、[illegible] 三、사발歌 四、興打鈴 五、도라지打鈴 六、孔明歌 黃順子
◇同八時三〇分 古歌 [illegible]桂月 張志浩
◇同九時(東) 피아노獨奏 一、헨델主題에依한變奏曲과遁走曲 作品二十四 브람ー스作曲 二、小品二曲 (가)[illegible] (나) 크라코비악크 파데레프스키作曲 메오니ー드·크로이처ー

第一放送

◇午前〇時〇五分(名) [illegible]
◇同六時(東) 童話
◇同六時二五分(東) [illegible]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城) 新日本音樂
◇同八時二〇分(大) 浪花節
◇同九時(東) 피아노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二)

玄德 作
洪祐伯 畫

노마는 이런 어머니를보앗다 본래 어머니의 뒤를밟어 서창엘 갓섯다。그러다 마당 군중가운데서 어머니를 일혓다。다시 자젓슬때 노마는 좀더 놀랏다。목선 차향한 벽선우에 올라안저서 어머니는 사오인사나이들과 섞겨·히롱히롱하고잇다 어깨에 팔을 걸고 몸을 실린 조선바지에 양복저고리를 입은 자에게 어머니는 술잔을 입에다 대주랴하고 그자는 손바닥으로 막으며 고개를 젓고 그리고 술을 바더 마시고 나서 또 빈잔에다 술병아구리를 기울 이는 어머니를 제무릅우에 안치려 하고 아니안즈려 하고 나머지 사람 들도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히히낙낙 하는 것이엿다 노마는 그런 어머니를 전혀 꿈에도 본적이 업다 어머니는 그곳에 와서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떨고 잇지 이 노마 자신도 한번 바더보지 못한 귀염을 뭇사람에게 밧는것이 아닌가、자기 어머니가그처럼 소중한존재인것은 몰랏다 노마는 저도 갑자기 층이 오른는듯 시펏다。모든사람에게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크게 알려주고시펏다。노마는 어머니를 부렷다。두번 세번 그러나 해벼츨 손으로 가리고 찌긋이 노마를 보든 어머니는 점점 자기집부어캐서 흑이 볼수잇는일 그러진 얼굴로 변했다。가튼얼굴로어머니는 노마를 장고뒤로 끌고가 말어서 머리를 쥐여박엇다。이런때 동뒤로 배여잇든 양복조고리가 나타나서 조화다 그는 어머니를안어 뒤로밀고양복주머니에서 밤을 꺼내 노마머리우에 흐러떠러트리며 우섯다 붉은 얼굴에 밤송이가튼 험보엿다。

집에 잇슬때 어머니는 담벼락가티 말이업고 난 나이가적다 노마를 나무래도 말보다손이압서 소리업시 꼬집거나 쥐여박거나한한 언제든 섯이 안풀려 몽송이 입을 오그린다。남편이 보든면 대명연시 얼굴한 내놋는다。그를 대하고는 아버지도 멍추가된다。어쩌면아버지는 안해가 보는데서는 일부러 더 알는소리를 하는것인지도 모른다。고개를 쿨려 벽을향하고 눕거나 이불을 둘쓰고 될수잇는대로 안해에게서눈을감으려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나가고 업스면 이러나안저 이불도 개여올리고 노마를 상대로 이야기도한다。

―노마야 노마야。

가락니피 다그르 굴러나리며 집웅넘어로 아버지의 가느다란 음성이 넘어온다 방안에서 들창을 향해 부르는 소리다 노마는 살금살금 아프로 도라간다。밀시 요강을 가시여오라고 찰랑하게 내노흔것이니 살며이 부시여다 들고갈 작정。웨냐면 노마는 요강을 가시느라고、지금까지 가태를 한것이지 결코 부르는소리를 듯고도 모르척한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삼을수잇다 그러지안허도 아버지는 오줌으로 노마를 겨레서잡시를 떠나지못하게한다。오줌을 누러가도 벌서『어디가니』그리고 영이하고도 놀지말고 아무하고도 놀시마라、만날 아버지와가치 방안에만 잇서달라는거다。그러니까 노마는 아버지가 잠드는 틈을 엿보지 안흘수업고、그러나 잠이 깨기전에 도라와 안기는 쉬운일이 아니여서 흔이 날벼락을 맛는다。

노마는 안가슴을 헤치고 벼츨 조이고 안젓는 아버지와 마주친다。갈갈이 뼈가드러난 가슴이다。그가슴을 남에게 보이는때면 고런이 화를내는 아버지니까 노마는 또한가지 죄를번 셈이다。지레움상을하고 손가락을 입에 문다

『노마 이리온』

그러나 고개를 처들게하고코미를 씻치드니

『저리가 안저봐라』

비렁을 찍어 핀 손바닥만한 붉은 마당에 오지항아리 몃개가 섯고 구구자나무 그림자가 지든 한편은 벼치 단양하다。아들을 땅바닥에 주저안치고아버지는 목목히 바라다보기만한다。장독뒤로 한포기 억새가적은바람에 쌔쌔하고 어듸서 귀드람이도 운다울렷드니 여기는 흙사고한정인 가운생각이낫다

義興十五日會

軍威郡義興面邑內洞 高應根
軍威郡義興面邑內洞 高慶壽
軍威郡義興面梅城洞 金炳武
義興酒造株式會社 山城支店
友保酒造組合
友保面長 朴錫鉉
軍威郡古老面事務所 職員一同
軍威郡古老面栗田洞 裵錫奎
軍威郡古老面鶴城洞 朴鍾慶
古老面槐山洞 申英均

端川飲食店組合
組合長 金鍾圭
金周奐 金泳奎 李春紅 金青雲
金允浩 方云鳳 李一嬅 金琴仙 金德姬

謹奉賀戰勝之新年
端川警察署
管下
阿片組合
國防義會分會
國防婦人會分會
五夢分會 龍崗支部 奇岩支部 蓮坮支部 汝海津分會 廣泉支部 上農分會 龍源支部 古城支部 新德支部
端川警察署
雲承支部 雙上分會 峕洞分會 新滿振興委員會 堡巨支部 甑山支部 大新支部 龍川支部 黃谷支部
端川邑內 成新舘
新滿面直洞 金洛龍商店

端川邑 春日舘
端川邑內 高瀨端川出張所
端川 許秉先商店
端川邑 咸興冷麵屋 主尹夏
端川 端川穀物商組合
端川 崔澤淵商店
端川邑 和信連鎖店
北斗日面職員一同
大新里 金始鎬
大新里阜販賣所 安潤喆
大新里 林洛敎商店
大新里 楊觀燮醫院
北斗日公普校後援會
大新里 鄭公義商店
端川邑內 沈京源造車工場
端川邑 金寶默商店
水下面古城 咸國衡商店
水下面古城 金仲仁商店
水下面 古城繁榮會
水下面古城市 金秉珥商店
水下古城 尹利松商店
端川驛前 同信商會
南大水利組合
新滿面五柳川 五柳青年團

新滿面直洞 金南均商店
新滿面直洞 醫生 金泓均
廣泉酒造場
端川邑 朝鮮電氣端川營業所
端川面下 朴元用
端川邑內 徐春植商店
福貴面職員一同
端川邑內 安昌柱商店
水下面古城 端一旅館
端川漁業組合 理事 金弘賢
端川稅務署職員一同
端川郡廳
水下公普校後援會
端川邑 秀乃家
水下古城 若松 ワカマツ
水下面古城市 古城館
水下面古城 美人樓
水下面古城 中央醫院 公醫 韓觀熙
盤石
盤石驛前 海星堂 裵聊聲
磐石驛城 權東采

咸南端川邑內 料理 永樂園 電話二一番
端川面職員一同
水下面古城 德元商店
水下面古城 白元學商店
端川學校園
端川學校長
水下面內村 公醫 朱林裕
何多面 栢子洞酒造場
新滿振興委員會
新滿面職員一同
水下面長 金弼殷
水下面 龍源酒造場
吾夢驛前 丸星代行營業所
何多面職員一同
端川家具店
端川邑內 ヒカリ屋
端川邑 普信商店

謹賀新年

東草

江原道大浦港
鄭珠碧

東草漁業組合
組合長 高裁東
理事 西島辰藏

朝鮮江原道襄陽郡大浦港
襄陽鰯油肥製造業組合
組合長 鄭珠碧
理事 小野川春一
書記 金石基

江原道東草港
水產業 姜來秉

江原道東草港
水產業 李興守

襄陽郡道川面
職員一同

江原道襄陽郡道川面東草里
メリヤス 食料雜貨 既成服 海陸物產
徐慕賢商店

大浦金融組合

東海北部線大浦驛前
朴源禎

東海北部線東草驛前
運輸業 食料商
ワ 三和運送店
三和商店
主 金東起

東海北部線東草驛前
東興堂時計店

東海北部線東草驛前
金奐基

東海北部線東草驛前
ヤ 東草廻漕店
東草運送部
和洋食料 日用雜貨 郡賣商
徐哲商店 電略(ヨ)ヌハ(テツ)

東海北部線洛山寺驛前
⊙代行營業所
代表者 金振鎬

江東

平南勝湖里驛前
今泉自動車部
主 今泉宮內

江東郡
三登面事務所
職員一同

平南勝湖里
昌盛麵屋
主 尹昌周

平南江東郡
勝湖里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江東郡高泉面事務所職員一同

平南勝湖里
山海麵屋
主 黃應學

平南勝湖里
安成精米所
主 安翰柱

平南勝湖里
百笑亭
主 金昌範

江東邑內
光霽會

江東郡三登市
田昌範

江東郡元灘面松塢里
朴鼎實

江東郡
晩達面事務所
職員一同

江東郡三登面文明里
理事 朱道興

三登市 三明商店
店主 金麟聖

江東郡元灘面高飛里
面長 上岡二郎

平南勝湖里金融組合
職員一同

平南勝湖里
公醫 高仁弼

平南勝湖里 昌盛商店
主 金昌俊

平南勝湖里 正信商店
主 崔正煥

平南勝湖里 酒新理髮館
主 金白羽

江東郡 三登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江東郡三登市
增田四郎

江東郡三登面文明里一二三
宋喆坤

江東郡高泉面 公立烏浦學校
職員一同

江東郡鳳津面香木里
校長 金光浩

江東郡元灘面文隅里
李復燮

江東郡晩達面舊酒里
李濬彥

江東邑內化恩藥局
醫生 金炳鉉

奉祝詩
[illegible]
成川郡三興面昌平里 愚奄
金鳳翊

江東郡江東面下里一二三
春元醫院
醫師 孫慶珍

陜川

陜川郡農會

陜川郡各面職員一同

陜川砂防事業所職員一同

陜川醫院
醫學士 公醫 姜泰珪

同仁醫院
院長 文鐵洙 電話二〇番

道議員
李景祥 電話一四番

陜川西山
李光洙

陜川邑內
丸陜荷物自働車部

三嘉市場
宣和醫院
院長 崔敏七

陜川郡鳳山面
大麗金山事務所
崔玟煥

慶南陜川郡鳳山面
三旺金山事務所
金東洙

陜川稅務署

陜川酒造組合

陜川金融組合

陜川產業組合

陜川郵便所
所長 久光三郎

伽倻山
海印寺宗務所

陜川邑內
入齒拔齒專門
朴麟範齒術院

大陽面長 鄭震基

三嘉面長 姜信富

大幷面長 宋壽永

陜川
繁榮會長 李文基 電話二一番

喪中欠禮
金命洙

陜川聖母幼稚園

陜川酒造合資會社
電話一五番

慶南道陜川邑內
陜川藥酒製造株式會社

李源鎔

吉村又一

布木商店
李聖奎

張翰奎

陜川面仁谷里
金佑元

陜川邑
洋藥 漢藥 賣藥業
資生堂藥舖
宋性根

慶南陜川邑
土木建築設計施工 請負業
建榮工務所
宋炳根

慶南陜川邑內
官廳用達 室內裝飾 建具其他小物細工一式
昌元木工所
主 李相俊

李東吉

陜川郡 東興商會

長??里酒造場
李尙?

陜川面外谷里
李??

土木請負業
趙鶴伊木工所

來?湯
仁末鳳

光明堂

おでん チリトリ
千里十里

湖月食堂

陜川邑內
海陸商店

慶南陜川邑內
三光堂製菓部

理髮館
韓甲同

昌城旅館

カナリヤ
鄭順甲

二成商店

泰成商店

陜川邑
劉淳文

栗谷面
李祥演

三嘉金融組合

陜川郡三嘉面
鄭演台

三嘉面
金萬太

三嘉面一部里
李?

三嘉面一部里
郭?

佳會面
許淑

佳會面
宋?

龍洲面
裵鳳乙

大陽面
警察官駐在所職員一同

大陽面茂谷里
局 春甫

陜川郡大陽面德亭里
中央商店主 沈岳伊

大陽面茂谷里
姜點龍

大幷面
洪仁世

大幷面倉里酒造場
李尙德

大幷面柳田里
宋潤永

陜川郡大幷面柳田里
宋鎬元

陜川郡鳳山面延谷里
鄭宇俊

陜川郡鳳山面
權載一醫院·行政代書
權載一
權載陽

高現鑛山
許治九

榮州

榮州官公署職員一同

榮州邑
ノタ發動機 ビタ式クボタ特約店
諸石油發動機 天下唯一稱米機 萬能製粉機 稻扱機其他農具一切
カナミツ東油發動機特約販賣店
共榮商會
主 權赫基

榮州邑
朝鮮料理
新榮館
主 韓復興
電三七番

榮州邑
榮州興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吉濬
電話二一番

榮州邑
朝鮮料理
海東館

慶北榮州邑
各面學校一同

制式國旗指定販賣所 帝國ミシン榮州出張所 萬年筆 風呂?特約店 文房具 金銀細工 時計 眼鏡
德興社
美榮堂
主 柳??

榮州邑
榮州穀物商組合
電話三〇番

榮州邑
安成洋服店
主 安俊模

木材 建築
三益商會
電九番

丹山面職員一同

榮州邑
菓子 食料品
羅敬植商店

鳳峴面職員一同

慶北榮州邑
三光醫院
院長 尹明烈

慶北榮州郡
韓德履

榮州邑
榮州釀造株式會社
電話五一番

豐基釀造株式會社

榮州郡伊山面石浦里
恒心組合

榮州邑
金澤洋服店
主 金東守

榮州邑
濟世堂藥房
申太湜

榮州公普校前
食料品
榮州商店
電一八番

順興面職員一同

榮州郡長壽面長
宋震祥

平恩面長
張師麟

榮州郡伊山面
新岩釀造場
朴炳國

慶北榮州郡
安承元

安定面
東村釀造場
李允?

長壽面
長壽釀造場
金炳斗

榮州邑
米穀 肥料 木材
達榮商會
主 鄭?

豐基參業組合

榮州郡豐基市
豐基乾材局
主 李炳台

豐基和信運輸店
李鳳瑞

榮州邑
大榮柱礎製造所
主 申浩俊

榮州邑
崔茂樹
電話二七番

榮州郡順興面
和洋雜貨
宣鎬福商店

榮州郡安定面新田洞
永昌商會
丁佑燮

榮州邑
綢緞布木 郡賣散賣
洪成商店

榮州邑
綢緞布木 郡賣散賣
孫海龍商店

長壽面盤邱市
穀物 肥料
全斗鈺商店

榮州邑
南元俊

參禮

參禮驛前
參禮穀物組合

參禮驛前
全益農場
主 李奉承

完州郡參禮面?瓦里
鑛業
柳謹玉

益山郡春浦面?亭里
崔鳳來

富乃春製造元
參禮酒造場
主 權日用
李斌

參禮面參禮里
尹建重

全州府?南町
柳永昌

益山郡王宮面溫水洞
朴溶植

喪中欠禮
吳普善

完州郡參禮驛前
黃斗賢

參禮面事務所
職員一同

參禮面石田里
雜貨商
崔應鎬

完州郡參禮面?瓦里
柳東玉

參禮驛前
雜貨商
河在雄

參禮驛前
崔錫天

完州郡參禮面?瓦里
柳士浩

參禮驛前
參禮飲食店組合

參禮驛前
三英洋品店

益山郡王宮面?里
面長 宋廷植

完州郡參禮面?瓦里
柳性玉

肥料商
朴相龍

參禮面?瓦里
柳允玉

寧海

盈德郡丑山面陶谷洞
陶谷鑛山
李世衡

盈德郡柄谷面榮洞
榮東鑛山
田朴田
溶珉溶
漢亨沃

盈德郡寧海面
親交會員一同

盈德郡寧海面
寧海鑛山事務所

寧海面城內洞
海東病院長
尹昇烈 電話三一番

寧海
朴正允 電話三三番

盈德郡寧海面大津洞
寧海漁業組合 電話四番

釀造場
金秉英

丑山港
道會議員
三好佐太郎

丑山港
丑山漁業組合 電話五番

丑山港
朴景昌

盈德郡柄谷面白石洞
金鼎漢

益山郡春浦面
鄭俊謨

參禮驛前
雜貨商
李鍾仁

參禮驛前
同仁醫院 電話一七番

參禮驛前
昭和會

參禮驛前
尹錫東

完州郡東面長久里
朴魯正

參禮東?乾材局
姜金玉

參禮面警察官駐在所

參禮驛前
李承玉

參禮驛前自轉車舖
李敎徹

益山郡春浦面?亭里
崔炳龍

泰興商店
主 崔圭貞

盈德郡丑山面景汀洞
金井謙

丑山面景汀洞
尹星穆

盈德郡
柄谷面職員一同

盈德郡柄谷面白石洞
金壽根

梨浦

梨浦市
廣信商會
崔圭源
崔秉權

梨浦市
李揆錫商店

寧州郡金沙面梨浦里
?文?
金榮鎭

梨浦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梨浦酒造場
崔應源

金沙面長
朴建奎

梨浦醫院
公醫 尹敬晧

寧州郡金沙面龍?里
寶龍金鑛
李慶浩
朴聖敎
李弼鎬

寧州郡介?面下?浦
崔時

延吉

間島省公署

延吉營林署
署員一同

北滿產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牛尾正一
燒酒釀造工場 電話五一六番
延吉魚業市場直賣店 電話三四〇番

滿洲帝國協和會
間島省本部長 江原綱一
間島省本部副長 劉鴻洵
間島省本部事務長 海保正夫
間島省本部總務科長 朱鍾宇
間島省本部指導科長 堀鐮一郎

延吉天主堂

延吉縣長
林珪

延吉郵政局
局員一同

間島省延吉街
東邦殖產株式會社
間島出張所
黃潤東
外職員一同

滿洲殖產株式會社
延吉出張所

朝鮮總督府延吉派遣員
植田柳助

間島省延吉縣延吉街
間島無盡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錫瑋

株式 間島銀行
延吉支店

金沙面職員一同

梨浦酒造場
金昌漢

金沙面
內務主任 鄭智植

金沙面
崔?
朴?

梨浦金融組合
池德萬

司法書士
申泰亨

梨浦診療所
朴元植

上虎里
區長 申鉉禹

大神面長
嚴柱寬

延吉電業股份有限公司

延吉縣公署
劉桂榮

延吉警察廳長
崔玉斑

延吉營林署官行斫伐請負
同茂組
李甲生
延河龍
作業地 天橋嶺森林事業所 第一作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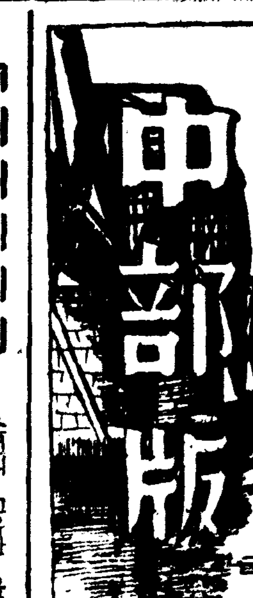
間島儒林聯合會

延吉明倫學校

延吉海星學校

延吉縣商會
會長 馬一清

延吉縣長安村公署



조선의 고유한 음악이 점차로 쇠잔해져서 식자들은 그유지책을 강구하기에 급급하나 본래 음악을 천히알든 옛 습관의구투는 창병이 아직도 깨트리기어려워서 커다란 난관을 이루고 잇든터라 송만갑(宋萬甲) 리동백(李東白)량씨는 이미 연만한터이요 그를 이을만한 후계자는 생기지안하야 그들의 의발(衣鉢)을 전할사람도 업스리라 차탄하게 되든바 그들의 뒤를 이어 조선명창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빗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업슬 신인(新人)한분이 혜성과가티 장안에 나타낫스니 그는 보은(報恩)의 김석구(金錫九)씨로서 원친안과 모든지척들이 가문을 더럽힌다고 반대하얏슴에 불구하고 기울어지는 조선의음악을 붓들고자 분연히일어나서 그방면으로 수업(修業)한지 불과 사오년의 짜른시일이언만 본래 천품이 놉핫고도섭의가 우월러서 오늘날와서는 당대의 명창인 송리량씨로도자리를 사양치 아니치 못하는것이다。당자인 김석구씨는 좀더연구를 싸허서 대성(大成)을기다리고자 하는것을 좌우친우들의 권면에조차 지난연말부터조선음악무용연구회 (朝鮮音樂舞踊硏究會)를 조직하야써 후진양성에 노력하게 되얏거니와 다시신춘을 마지해서는 본보중부지국(本報中部支局)후원아래 제일회독창회를 여는동시에 조선서 명창이라고 손꼽히는 송만갑 리동백량씨이하 김창룡 정정렬 오태석 정남희 박록주등제씨가 찬조출연(贊助出演)을하게 되얏스니 이 독창회야말로지금부터 조선악계의 호화판이안 될수 업는 터로서 미리부터 기대되는바 적지 안타。시일、장소、입장료는 다음과 갓다。

시일 일월 십일일의 량일 낫밤

장소 시내태평통부민관대강당

입장료 오십전 (단 본보독자할인권을가지고 가시는분에한하야는 삼십전으로할인)

素人名唱金錫九氏
新春獨唱大會
李東白·宋萬甲外名唱總贊助出演
十日·十一日府民館에서

公定價格을無視 開城蔘界를攪亂
=蠢動하는奸商輩의非行=
發覺되면斷平處分

【開城】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에서는 고려인삼의 성가와신용을 영구히 보장하기 위하야 일반판매조합원간에 최소한도의 리익을목표로 매년시세에따라 도매급 소매가격을공정하게 협정공표하야 왓섯스나 이번에는 암암리에 추이경쟁들이잇서서 공정가격보다 더싸게상보(商報)에 발표하는부정행위를 감행해오든중 요즘와선날개가돗친듯이 잘팔리는 시삼대매증경기바람에 간상배들의 이가든 경향은 고만 절정에달하야잇는 현상이라는바 이것은 결국 일반삼업자의 자멸적행실이며 한거름 더나아가선개성삼계에까지 커다란 암영을 던지수는 심조인바 이에대한응징책을 고려중이든 전기인삼동업조합에서는 지난번일 조합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그대책을 협의한결과 금후이런부정행상을 단연퇴치시키기위한 목적으로『공정가격파괴자는 발견하는 개성상업계를 좀먹는자이니 단연도장하라』는『멧세ー지』를 공표하는동시 조합직원이 총동원하야 일반삼상의 최근동정을 엄중히 취체키로되엿다하니 금후로 만일적발된 부정상인에게는 조합정관에비취서 파태금(過怠金)ー혹은 제명처분의 수단으로 삼업판매와 인연을끈허 노토록단호한 처벌을내릴모양이라한다

薪炭價格急騰

【仁川】요사이 갑작이추워진관계로 인천의연료갑은 어떠한것을물론하고 이할 삼할식급등하엿다는바 이제자세한것을 조사하야보면 작년년말까지의 장작한층(百斤)에 최고가일원박게아니하든것을 근일에와서는 일원이삼십전 엽송열집(十束)에 일원삼십전하던것이 무려이원 등겨한마차에 이원오십전내지삼원이면사든것을 요사이는 삼원오십전 사원이상을주어야 사게되여 인천항의 빈민생활에 일대위협을 주고잇다고한다

春川消防組出初式

【春川】건곤(乾坤)이일전하야신춘을마지한 춘천소방조(春川消防組)에서는 지난六일오전열시부터 춘천경찰서(春川警察署)압뜰에서 김(金)강원도지사연천(撰田山村)량부장을 위시하야 관민다수의 참석리에 출초식을거행하엿다

時日 一月十日·十一日
場所 府民館大講堂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入場料 五十錢을三十錢으로
金錫九獨唱會
一人一枚限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鯤超 畵 【22】

송악산(二十二)

배돌석이의 몽둥이를 마즌일찌들이 모주리 쳐다 면상을마저서 흙은 이마가 깨지고 흙은 불이 러지고 흙은 입술이 찌개진우에 압니까지 불어지고 처음에 뒤로 섭마저서 망건뒤만 끄허지자도 나중에 아프로 쫏처나가다가 삭은곳을 마저서 코피로 옷을 물드리엇다 그러나 얼마동안 지난뒤에는 꾹그러지고 업드러진자들이 거진다 정신을 수습하고 일어나서 상처들을 서로 보아주고 만저주고하얏다 그중의 령수적인 도사의아들만은 뒤통수에 한번 낭미간에 한번 두번 되게맞고 꼭그라질때 까물친채 이내 떠여나지 아니하야 여럿이 모두와서 구원들하얏다 바듯이 눕혀노코 때 옷끈 다끌르고 버선행전 다벗기고 주간에서 가슴을 문질르다 갈비때를 문질르다 여페서 손바닥을 부빈다 발바닥을 부빈다 한동안 조이 애들을 쓴뒤에 도사의아들이 겨우 사람을 알어보게되엇다 인제는 빨리 부중으로 나려가자고 공론들하얏스나 이아아짜제제가 걸어갈가망이 도저이 업슴으로 태워갈 준비를 차리러 한놈이 먼저 부중에 나려가기로 작정들하얏다

황천왕동이의안해는 여러윌짜가 억지로 잣바트리고 사지를 지지눌를때 어진혹이 다나가서 수습을 맘대로 놀리게된뒤에도 한동안 잣바진채 꼼짝아니하다가 어떠케 정신이 돌아서 일어나라고 움직이는 것을 먼저 기신유차린 왁짜한나가 발길로 면번차서 못일어나게하고 그뒤에는 여럿이 이놈와서 거더차고 저놈와서 거더차서 이리저리 굴리고 그리고 또 우아랫도리를 합보루 짓밟밧다 그자들 하는짓이 보기조흔꼿을 꺽거서 내던지고 그것도 부족하야 짓밟바 망가질르는것과 가텃다 이런 몹쓸짓을 돌쫄매마즌 분풀이로 한자도 잇섯슬것이고 또 남이하니 떠달어 한자도 잇섯슬것이나 대개 속에 불가튼 욕심이잇는데 경황업서 욕심을 풀지못하고 뱃장업서욕심을 채우지못하야 못먹는감질러보는심사로 한자들이 만혓슬것이다

먼저 부중으로 나려가랴고나간자가 즉시 돌우 뛰어들어오며

『풀매질하든놈 저기 잡혓스니 어서들 나오게』

하고 소리를 처서 운진을못하는 도사의아들외에는 모두다 뛰어나갓다

배돌석이가 일꾸무놈과 싸워서 허물을 다시 대면지중하야 찍구러트리고 한놈마저 꺽구러트리랴고 힘을 가지것 다쓰는중에 엇던놈이 절로죄오로 애워싸고 달려드는데 돌팔매 원수에 놈들이 빨가케 뒤지퍼서 저오되도만한 큰장돌로 찔려죽이라고 멱비는놈까지잇섯다 배돌석이는 닥치고 다부진사람이지만 형세가 도마롯하면 죽을관이라 그중 만만하야보이는놈을 발끼로 쭈가슴을 내질러 잣바트리고 에워싼속에서 뛰어나옥스윽에 어떤놈이 눈견에 발울걸고 멀괴를 지피서 잣바트린놈 여페와서 업드려젓다 배돌석이가 몽둥이 위태할때

『이놈들』

나데업는 큰소리가 들리더니 황천왕동이가 큰힌도를 빼어들고 비호가티 달려와서 닥치는대로 나려찍엇다 서너놈은 칼맛고 꺽구러지고 네댓놈은 칼무서워 물고뛰어엇다 배돌석이가 일어나는것을 황천왕동이가 와서 거늘어주엇다

『다치데 업소』

『나는 괜찬느니 아주머니나어서가보게』

『어듸잇소』

『서안에』

배돌석이가 산모퉁이 안을 가르처다

황천왕동이가 안해를 와서보니 참혹한꼴이 차마 눈으로 볼수가업섯다 다죽은사람인데 잇다금 코로나오는 안까넘쓰는소리가 죽지안코 살어잇는표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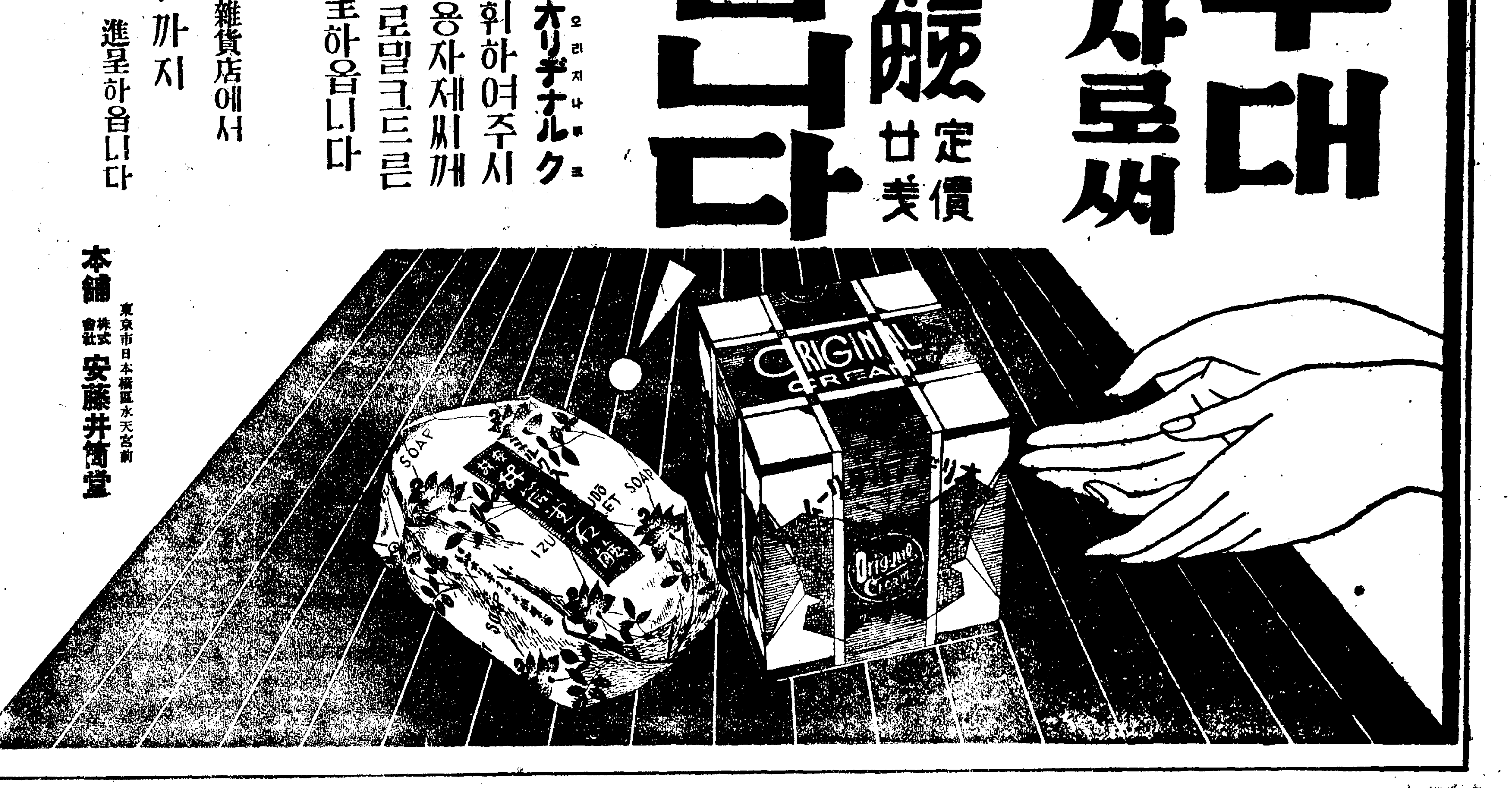
『나 여기왓서』

『눈좀 떠보게』

황천왕동이가 안해의몸을 만지기도하고 흔들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흘르는눈물을 씻서가며 드려다보고만잇는동에 김억석이아들이 압서 들어오고 그뒤에 서림이와 길막봉이와 배돌석이가 다가치 들어왓다 서림이가 약낭에서 사향소합원을 끄내서 황천왕동이를 주며 씹어서 입속에 흘려너흐라고하고 또 무엇을 한참생각하다가 안옷고름에 찬 갓모를 끌러서 김억석이아들을 주며 갓모로 물을떠오라고하야 찬물을 얼굴에 끼언쩌하엿다 얼마만에 황천왕동이의안해가 감앗든 눈을 떠서 남편을 한참보다가 [illegible] 눈을 감고 다시 얼마만에 속으로 입을 가르처서 찬물을한모금 바더마시고 남편의손을더듬어만즈면서 모기소리만한 목소리로

『이게 저승이요』

못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앗다



애용자대우대
정초의감사의선사로써
高級化粧用 밀크드르는
井筒おそね鹸 定價廿美
진정드립니다!

進呈方法

올 겨울도 늘애용받든オリヂナルクリーム으로건강미를발휘하여주시도록 大瓶을사주시는애용자제씨께 애호에대한감사의뜻으로밀크드르는 井筒堂石鹸을 즉시進呈하옵니다

場所와期間

포스타ー가 걸녀잇는 全道化粧品店 藥店 雜貨店에서
이달三十一日까지 進呈하옵니다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清導補腎丸
中國名藥 性器強大靈藥
振替天三二四四番 東亞公司藥品部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二一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〇五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平壤大和町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産婦人科
院長 醫學士 李麟杰
物療科新設 超短波 産室完備 入院隨意

大田藥令市
開市 昭和十二年十二月十八日(陰十一月十六日)
閉市 昭和十三年一月三十一日(陰十二月末日)
大田藥令市事務所

就職近道
第三回 生徒募集
大滿測量學院
本學院卒業生就職率九十%

生徒募集
京城測量技術講習所
▲出願 昭和十三年一月八日 ▲考査 昭和十三年一月九日 京城府蓮建町一九五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計記、製圖、伸縮補正法、數學、滿洲語、習字
▲六個月卒業 ▲學則請求要三錢切手 電光二七八九

官認 大田寫眞學院 生徒募集
志願締切 昭和十三年二月三日 開學日 昭和十三年二月五日
學則要三錢切手 大田府

李殷相著 漢拏山 定價一、二〇 送料十九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學校의成績
ノーシン
노ー신

여보시오
이것을처서음식을맛잇게하야잡수시는것은 우리생활의 근본문제입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登錄商標)

經濟解說 列强의 工業力、

事變第二年을마지하야 我國工業界는 緊張裡에生産力擴充에 政策을 集中하고잇다。燕京政府가 失敗되엇지만 依然 第三國에依存하고長期抗日의 態度를 取하야 我國을 困惑한 列强의 風習을遂行하려는今日 國防經濟의確立은 必須의일이오 一切의經濟活動이 이一線에 沿하야 去益强固한 統制下에 進코저하고잇다。國防經濟確立으로―生産力擴充으로―邁進하는我工業界의前途는 過去의 工業力發展、世界列强과의 工業力比較上에 確立할것으로서 年

頭에際하야 國防經濟의 重要性으로 世界列强의 工業力을 보는것도 意義잇는일이다。一國의 工業力이 國防經濟의 立場으로보아 國力決定의 重要條件인것은 明白한일로서 「戰爭은工業이다」라는 一原則의말도 반드시 誇張이아니다。

그러면이工業力은世界列强의 사이에 어떠케 分布되엇는가 世界恐慌前인 一九二八年을보면 世界의 總生産額은 三千五百億乃至四千億이고 그比率은 如左하다。

米國	四四・八%
獨逸	一一・五五%
英國	九・二六%
佛國	七・〇〇%
蘇聯	四・六五%

그러나 其後 各國의 重要産業과 工業力增進은 그順位에 顯著한 變化를 生하엿고 我國도 工業力의 增加를示하엿다。卽一九二八年을基準으로한 各國의 工業發展을 示하면 그指數가 如左하다。

	一九三六年	一九三七年上半期
世界	一〇三・六	一一三・九
蘇聯	三六〇・九	―
日本	一七七・七	一九〇・一
英國	一二一・七	一三二・四
獨逸	一〇六・八	一一四・四
伊太利	九三・五	一〇〇・五

伊太利	三・一五%
日本	二・三五%
合計	八二・七六%

卽七大强國이 全世界의 八割餘를 占하고 我國은 最下位에잇다。

以上과가티 蘇聯及獨逸의 工業力增進은 實로 顯著하엿스며 이리하야 一九二八年에는 世界全生産의 겨우二%餘에不過하엿든 我國은 一九三五年에는 그能力이잇서 實로二倍强%를占하고 米國에다음가는第二位이엇다。

米國	四四%
蘇聯	一四%
日本	一四%
獨逸	一二%
英國	一〇%
佛國	七%
伊太利	三%

다만 이에注意할것은 此等生産能力에比한 各國의 産能力이 어떠케 運轉되엇느냐는點인데 左表와가티 我國은 實로 그全生産能力을 百%로 運轉하고잇는現狀이다。또 米英 諸國은 餘裕를 남기고잇는 現狀이다。

米國	六六%
英國	六七%
獨逸	八〇%
佛國	六〇%
伊太利	八〇%
蘇聯	九五%
日本	一〇〇%

以上과가티 我國의 工業生産力은 蘇聯과함께 顯著한飛躍을하고잇다하나 이미 그것은 能力을 全運轉한 結果로서 今後長期에 亘한國防經濟擴充을 爲하야서는 가장適正한方法으로써 生産能力增加를 圖할일이다。이것을 爲하야서는 全工業部門을 動員하야 그達成에努力할일이다。

스테ー풀・파이버 朝鮮綿織에도混用

商工省으로부터總督府에指令

特殊事情考慮必要

外綿의 輸入防止策으로 國內消費를 節約키 爲하야 商工省管下에서는 輸出品을 除한綿製品에 스테ー풀・파이버를 三割以上混入하도록 省令을 發布하야來二月一日부터 實施케되엿는데 이에對하야 朝鮮에서도 早晩同一한 步調를 取하게되지안홀까하고 推測되고 잇는中 果然商工省으로부터 朝鮮에서도中央의方針에 順應하라는 指令이 잇섯다。總督府 商工課에서도國策에 關한事項인 以上適宜히問題를 處理하여야 할것을 認語하고잇스나 當場問題視되는點으로는

關係上 品質이 더 弱해질것이니 家庭經濟上 損害가莫大할것이다

一、또 內地의工場는 그設備와技術이 優秀하여 混用에 그리支障이업다고해도 朝鮮의工場은 果然 三割以上의 스테ー풀・파이버를 混用하고도 織造技術上 支障이업겟느냐

이러한點이 朝鮮으로서는 特히考慮할點이다 同省令에依하면 事情에依하여서는 地方長官의 許諾을 어더서混用의數量을 緩和할수도 잇다하엿스나 朝鮮으로서는 內地와同樣으로 取扱할수업스리라는 見解가잇다 그러나 結局은 그混用을 보게될모양이어서 朝鮮에도 스테ー풀・파이버의 消費가大衆化하게될모양이다

一、스테ー풀・파이버를 混用케되면 製品이 純綿製品보다 弱해질은勿論 特히 朝鮮人側은洗濯法이 빨래방맹이로 두두리는

諸를原料로하는 酒精計畫에不安

食糧에充用・生産費昻騰憂慮

朝鮮內의 無水酒精生産은 一쇼ー라ー法에 依하야 甘藷를 農産原料인 藷類로 供給하기로 되어 後者의 農産原料에 對하야서는 藷類의 增産과 工場計畫이 進行되고잇서 近近總督府에서도 協議會를 開催하기로되어잇는데 最近에 至하야 藷類를 無水酒精의 原料로함에 對하야 左의 諸點으로 一抹의不安이 抱懷되고잇다

一、朝鮮에서 藷類를 增産하면食糧으로 消費될 憂慮가잇서서工業原料로서의 供給이不安하다

二、價格高로 酒精의 生産原價를 昻騰시킬 憂慮가 잇다

에서는 左方針을 定하얏다

一、堆肥를 購入할수잇는 境遇는 될수록 購入하야 補充하고 購入할수업는 境遇는 養苗의 困難을 招來치안는 限度에잇서 堆肥의施用量을 減하고 他肥料로써代用할것

一、堆肥의 所要量은 (益益增大할것은 明瞭하므로 今後 不足을 生할念慮가업도록 미리 그所要量을 推定하야 充分히 廣繁시키어 準備하야둘것

苗圃의施肥 方針을決定

植林事業의 前提工作인 苗圃의 擴張에 對하야서는 關係者 農林局으로부터 各道에 通牒을 發하야 今後 一大擴充을 圖하기로되엇는바 從來의 施肥標準으로는 멀지안허 堆肥의 不足을 招來할 憂慮가잇슴으로 農林局

石油新配當 內油全廢乎

昭和十三年度의 朝鮮內石油配當은 薪醬米 商工省과의 折衝을 맛치어 一兩日中에 當業者에 正式配當을 行할豫定인데新年度의 配當은 石油統制强化의 時潮에乘하야 劃期的으로 强化되는것으로 問題의 內油各社의 朝鮮內販賣配當은 全然 削減을 보게되엇다

이는 商工省과 總督府와의折衝에依하야 內油의 朝鮮配當을 廢하는同時에 朝鮮品의 內地進出(人造裹除外)도 制限하야 合理化할 協議成立에 基함것인바 從前 內油는 小倉、三菱、早山三社가 朝石品과 對抗狀況에잇드니만치 販賣店方面에는 적지안흔 影響을 及할 模樣이다그리고 新配當에 잇서서는 朝石을 中心으로하고 이와 外油에依하기로되어잇서 從前의 半期配當은 今年부터 四期配當에變更을 볼豫定이다

잇는 輸送不圓滑의 憂慮도 全然解消하리라고 期待된다

鮮銀在支支店 全部黑字의好績

鮮銀在支支店의 十二年下期業績은 支那事變의 影響을 蒙하야 一般으로 憂慮되고 잇든바本店에達한 決算에依하면 北京 天津、靑島、上海의 各支店業績은 모다 黑字를 示하얏다 勿論 靑島支店과 如함은 撤回後 支店家屋의 爆破에依하야 所謂 收支以

檀木輸出許可制 事實上禁止同樣

檀木의 輸出은 大正十二年以降 府에서는 該法施行期間中은 特來 許可를 要하게되어잇는바 昨年輸出入品臨時措置法 實施以來 이미 許可를 受한것도 同法에依하야 거듭 朝鮮總督의 許可를 必要로하게되엇다 그러나 總

別한 事情이업는限 原則으로 不許可方針을 取하기로 決定하고 이지음 各道知事 及 營林署長에게 通牒을 發하얏다

鐵道滯貨 順調로消化

昨秋來의 滯貨는 年末의 鐵道最高能率發揮에 不拘하고 아직 全鮮的으로보아 約十八萬噸餘를 남긴 狀況이든바 越年後에 이르러 滿洲方面에의出廻貨車도 뒤이어 歸還하고 貨物의 殺到도 一段落되엇스므로 漸次順調로운 荷送分에 恢復하야大體 中旬中에는 平常狀況으로恢復할豫想이서게되엇다 그러고以上의 ○○갓잇든大量貨物의 肥料、鑛石類、雜穀類의 配車도 漸次 順調로되고잇서 一月中旬에 入하면 商取引의 壓迫材料로 되어

各市場의展望

株式 中間期의波瀾

年末年初의休會中의 周圍情勢는 日蘇漁業條約暫定協定成立 英艦爆擊事件圓滿解決等으로 好轉되엇고 金融情勢에는 變化가업서 將來할 인플레期待의 買氣는 潛在하엿스나 統制强化念慮等으로 初立會市勢는 凡調裡에 鈍化되엇든것이 戰時增稅說과함께 買方의失望賣氣投賣 務致하야 一場崩落을 告하엿스나 그만한程度의 增稅는 이미 覺悟한바이며 비록 事變에對한 透視困難이란 不透明한 情勢는 依然 緊觀만을不許하나 戰局의 着着進捗 國際關係緩和로 現實로는 이러타할悲

觀材料도 업스므로 崩壞한 後에 玉整理로 집이 가벼워진 主力株는 다시 急波亂面을 보이고 漁算上 輕低痛되는 綿株買氣는 繁常치 아니하야 諸株가年運動을暗暗裡에 行하면서 다시 諸株는 硬化上 進步調로 이週를 마치게 되엇는데 總體的으로보아 大勢는 依然 樂觀일이 를이라는 人氣로 買氣는 意外로 强하였고 此後의 騰落無常한場面은 結局 中間期의 波動에不過하므로 비록 波瀾에對한 準備는 必要하나 低價를 示現하는機會가잇다면 끗까지 押目買方針으로나아가는것이 大勢에順應함이아닐가 하는것이 老鍊側의 市勢觀이다。

期米 買上期待人氣로 漸進裡에强調

年末年始에 반듯이 잇슬것으로 期待되엇든 暴騰이 업서 二回買上은 마침내 發表가업서 人氣는 多少軟化하야 初立會는 比較的平凡하엿슬뿐외라 正米는 買氣薄의 閑散場面을 보여 이一角의不安은 未免하엿스나 買上은 어느때이던지 잇고야말것이라는 人氣로 買氣는 意外로 堅强하야 阪仁해는 漸次縮少에 向을보이면서 다시三十一圓臺를 突破하게되엇는데 急進步調로上進하는일이 잇다면 政府의 언對策이 반드시 잇슬것이니 인플레를 云調하드라도 急騰場面은 업슬것이나 政府買上價以下의 下値는 期待難이므로 中間的波

生絲 米國景氣不冴로 實彈側賣築流行

休會中의 紐育市場의 生絲集散의 大勢調과 나쇼날의 大商談을 보고 人氣는 極度로 悲觀되엇든것이 그것이 그後의 株式 重要商品類의 反撥로 人氣는 多少 安定되엇스나 初立會는 依然 米國의 消費不良과 新春景氣의 悲觀을 傳하야 買方의 失望投外합께 期近은 十圓內外의 崩落을 告하고 新甫도 買勢를 意識한 實彈側의 賣築物로六十九圓의 約四圓의 下落되엇고 그後 週末에는 多少高로 反撥하엿스나 外國景氣도 漸次回復氣味가 보여 實物도 押目買氣가잇서서 突入買는 警戒되고잇스므로 큰下値도 勿論업슬것이나 實勢로보아 急反

敎은 如何든 米價의 大局으로 까지 押目買方針이 妥當할것이니 假令一押이잇스면 絶好의買場이될것이 아닌가한다。

綿絲 統制强化豫想으로 高價는期待薄

休會中의 米棉은 凡調이잇슬뿐외라 環境도 統制化로 高價는 期待難이되엇스므로 大發會는 買方의 處分物이 多量으로 나타나 各限이 軟調를 示하고 新甫七月限은 二百二十二圓五로 九十錢下落을 하엿스며 人氣의 冷靜化로 一時는 各限이 모다 二百三十圓臺에 顯著하고 先限은二百三十圓臺를 보엿스나 米棉反撥로 一月부터는 最高標準制를 實施하야 現物이이에 寄與하지안흠면 안되기되엿스므로 都賣商側은 漸次 淸算에 賣築物을 내고잇스며 年末手當一巡으로 實需도 크게 樂觀할것이업서 米棉의 大幅昻騰이 업는限 얼마동안은 低賣商狀

人絹 環境低로不勢나 大勢는依然樂觀

初立會의 人絹은 環境低에따라 下放을보이고 이어서 期近으로부터 崩落하야 當限은 다시 七十圓臺를 보여 不勢를 밟게되엇는데 元來가 實勢를 無視하고 買付한 市勢라 一押이 또한 當然視되는 나 需給上으로 이를보건대 生産高는 五割五分의 高度操短의 制限으로 十二月로 二月까지의 生産은 廿二萬函內外에 不過하고 三月以後의 緩和도 從來의 程度로보아 그다지 큰것이 못되리며 이에對한 消費는 北支도 漸次活況을 呈할것이며 國內도 絹綠代用의 消費激增이 豫想되어 이方面으로는 業 가 업스므로 一、二月의 輸出不振期는 불타운도 輸出活況에 따라 漸次 回復될것이니 大勢는 押目買方針이 妥當視되고잇다(金城生)

移出港在米 百廿四萬石

全鮮各主要港의 客年十二月末日現在의 在米高는 百二十四萬八千五百八十五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四十八萬九千六百九十三石 前月末에比하야 三十四萬千二百石이 모다 增加하얏는바 그內譯은如左하다 (單位石)

正租	九二三、四八〇
玄米	四〇四、一一三
白米	一一九、九一五

軍需工業中心 事業擴充頗旺盛

昨年計畫資本卅五億餘圓

日銀調査=銀行會社計畫資本調査概算에 依하면 昨年中의 新設增資 社債總計는 一千三百八十七社、三十五億七千七百四萬三千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四百五十二社、十五億七千六百四十三萬五千圓이 增加하야 前年에比하야 一倍半以上의 增加를 보이엇다 그런데 그內譯을보건대 新設은 千七十一社、十八億七千七百九十四萬九千圓으로되어 昨年中에 比하야 十一社、十五億六千三百四十萬二千圓이 增加하야 三百十七社、十五億六千三百四十萬二千圓이 增加하야 四十萬 九千圓으로되어 昨年에 比하야 百三十七社、五億六千三百三十七萬二千圓이 增加하엿다 그리고 昨年中의 生産力擴充의 進展하얏는가를 示하고잇다 그리고 昨年中 軍需工業 中心으로되엿슴은 新設內容으로보면 一層判然하다

卽 製造工業은 八億四千三百七十九萬四千圓으로 新設計業別中 首位를占하야 新設合計數字의約半數를 占하고잇고 鑛業은 二億五千八百萬圓으로 그다음이며 또 右製造工業中에서는 化學工業二億五千五十萬圓、機械及機具工業 二億二千四百五十六萬九千圓、金屬工業一億四千四百八十萬圓等이 中心으로되어잇다 다음에 社債는 이러한生産力擴充資金需要에 壓倒되어 不振裡에 終始하야 僅僅十五口 億三千五百六十八萬五千圓에 不過하야 前年에比하면 十口、一億二千百五十四萬三千圓의 減少로되어잇다 詳細는 如左하다

(單位千圓、括弧內는社數又는口數、△印減)

	昭和十二年	前年比較
新設	一、八七七、九四九 (一、〇七一)	一、五三四、九〇八 (三一七)
增資	一、五八六、九五九 (二六六)	五六三、三七二 (一三七)
社債	一三五、六八五 (一五)	△一二一、五四三 (△一〇)
合計	三、五七七、〇四三 (一、三五二)	一、九七六、七三七 (四四四)

그리고 昨年十二月中의 計畫資本數는 新設一億圓餘에 達하야 (社債는 皆無) 合計는 二億六千二百五十三萬圓이엇는바 新設增資中 主要한것은 如左하다

▲新設=東北振興알루미一千萬圓

第三次資金許可

十二月十六日以降 同三十一日까지에 臨時資金調整法에依하야 許可又는 認可가잇슨것은 如左하다

一、許可의分(三件) (第三回發表)

가、既設의 新設

나、株式會社住友본社本業改新設 第二回以後의株金의拂込

朝日製綿株式會社 咸興合同銀行

氣球株式會社

二、認可의分

中央自動車會社의設立 株式會社聯東機械製作所設立

株式會社三菱社 一億二千萬圓(三菱本社改組)

▲增資=擴裴川電氣一千四百萬圓 日産化學工業六千三百萬圓 理研피스톤링一千二百萬圓

經濟界消息

○協同油脂臨總=朝鮮協同油脂에서는 六日午前十一時부터 本社에서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一、定款一部變更의件

一、取締役一名、監査役一名增員의件

을 附議하얏는바 取締役에는 工學博士三雲次郎氏 監査役에는松野二平氏가 各히 選任되엇다 新取締役三雲次郎氏는 取締役會에서 常務取締役에 就任될터인데 同氏는 大正六年東京帝大工學部出身으로 오래 東京丸三屋商店의 技師長으로또 我國油脂工業界의 權威로 알리워진이이다

米	
計	一、〇五七
釜山	一、二四八、五八五
그리고 其內譯은 如左하다	
釜山	一八八、〇八四
馬山	八三、〇〇〇
麗水	六一、九七五
木浦	三三九、七四八
群山	一〇七、九五七
江景	五九、五一八
仁川	三一一、九三三
鎭南浦	五三、九九〇
元山	一六〇、〇六一
浦項	三六、八三一
	四五、五〇二

鮮銀券收縮

一月六日로 繰越된 鮮銀券發行高는 二億六千五百二十九萬四千三百四十二圓으로 前日보다約六百萬圓이 收縮하얏다 稍細의最高發行高二億九千百萬圓으로보면 實로二千五百萬圓의縮少인바 今後各種資金의回收에依하야더욱縮少의 一途를거르리라고 보인다

依한 出資를 넉넉히 카바ー할수잇는 狀態이다

貯銀預、積金高

在朝鮮貯蓄銀行의 預金積金現在高는 昨年末現在高는 總額五千八百五十五萬五千圓인데 그種別額은 如左하다

種別	十二月末現在 (單位千圓)
普通預金	七、九八一
特別當座	八、八四〇
據置貯金	六、七〇一
定期積金	三、〇二〇
定期預金	一、三九〇
別段預金	三〇四八
合計	五八、五五五

昨年末簡保契約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十二月末現在 契約數는內地人三十一萬五千件此保險金額七千三十五萬圓朝鮮人八十九萬六千七百件 保險金額一億五千九百二十八萬圓으로合計百二十一萬千七百件 그保險額은 二億二千九百六十三萬圓에達하얏다

今日의市勢 (八日)

株式 急返後의 一息

前場續强 昨日의 急返後의 今朝에는 外電의反彈에 不拘코 人氣는 依然堅强하야 寄付는東新百七十一圓九、鐘紡一百八十一圓四로八、續强步調이엇고 그後休日을앞둔處分物로 少弛이엇스나低價에 買物이潛在하야 다시强調로 朝新三十八圓丁을 보고東新도 百七十二圓臺를 보이다 을新三十七圓四 鐘紡百八十圓七 日産八十七圓一로 今週를 꿋막고後場은 土曜로例休이엇다

繼續强調

崩落後의 急返으로 一場波瀾後 今朝에는 波動이 잔잔하야 一息狀을 呈하엿스나 民賣物을 波瀾하고 鐘紡强調를 보이는 市勢의 底堅味는 相當한바가잇섯는데 目前押目底를 構成한形이된 市勢이므로 다시高價를 남긴것은 勿論이오 또大勢買도 勿

市場六感

株……新春의 첫週는 波瀾裡에 지낫다▲波瀾으로 始作되어라 끗까지 波瀾의 一年일지도모르는일▲如何든 昨今의 市勢는 實需變方의 勢力이 거의 均衡되어 高價를 보이면 賣되고 低價를 보이면 買反騰하야 크게보아 大局은 氣迷인듯하지▲氣迷가 氣迷가아니라 理想은 買하고십흔 테 現實이 이에 不添하는格▲이波瀾係合의 分岐는 어느곳으로 가느냐는것이 關心의 焦點인데▲有力側으로서본다면 끗까지 難手買가올흘것이나▲大衆側으로서는 中勢를 더重視할것이니 積極買는 尙早의 感이 不無▲上進하고저 하면 먼저 低落이 必要하고 昨冬의 昻騰後이므로 相當한整理가 아즉도 要求되고잇서 ▲或은 昨今의 騰勢는 一轉後 다시 一押될 順序나 아닌지 ▲百五十四圓五에서 八十圓五까지오를보면百六十七圓은 半値押이나 五十圓換上後十三圓五押만으로 다시上進할지 多少疑問▲百六十圓臺를보인데에 다시買된다는 警戒說도잇서 波瀾係合의 分岐는더욱注目▲議會再開와 財經策에 時히 注目할일……(金剛城)

米……今年度軍事費臨時別會計는 앞으로四十億乃至五十億圓을 計上할政府의 計畫▲이러한 膨大한豫算으로 보아서 諸物價의 低落은 멀어서 米價의 瓦落은 到底히期待할수업슬것▲그러므로 昨年의 兼戰도昨年과如히 押目買에 押目買로 勵進할수박게업슬모양▲그래서 都市와農村을 不問하고 持米側의態度는 누구나 頑强하야 政府의 買上이나 又는 減收期의 到來를期待하야 徐徐히 賣放할 計劃이로모양 (雲山)

財經策의今後

事變의長期戰化로 今年一年동안의 事變費特別會計는 적어도四十億을 要할것으로 觀測되어 通常費와合하면 今年度豫算은 實로未曾有의 大膨脹으로이며 政府의統制强化도 또한必至할것으로 豫想되고니만치 今年도 다시 財界의 神經을 刺戟할것처재는 公債消化問題 增稅問題로因한 인플레必至는 期待되나 가티 다시 財界의 神經을 刺戟할것이며 政府의 統制强化도 또한必至할것이며 後의政府의 財政策如何에 一般은크게注目하고잇는터이다 勿論政府로서도 豫算膨脹과 惡性인플레防止、增稅와物價問題、統制强化와 財界에의 影響等을 特別히 考慮하야 善處할것이므로 그다지 悲觀할 條件도업는터이나 마치增稅說에 依한 波動과가티 好惡材料의 交錯에依한波動은 一波二波도 적지안흔波紋을 그릴것이다 上下間 興味가잇다면잇지마는 上下間 順順한市勢가아니것만큼 相當한緊張이 必要할것이며 細心周到한研究가 必要할것이다

國債 一齊上伸 强調

(東京電話同盟)公債는 金融緩慢이 基調가 되어잇는만큼 押目買人氣가强하야 前日引際에 밀어서强化하게되는 때에 다시株式高를보고 買氣强하야 甲號五錢高며 第二回五十錢高로 一齊히 上伸되엇다

▲甲號五分 一〇三、三〇 ▲一回四分 一〇二、一五▲十九年物 一〇二、二五 ▲二十三年物 九八、五〇 ▲佛貨九分 一九六、九〇 ▲米五分半 三六九、〇〇

期米 正米高로 續進

前場續進 今朝阪地 先限三十四圓七十八錢인 十六丁反高를 擬하고 當限은 一圓八十六錢인 五丁高를 保하고 先限은 三十二圓二十五錢인 八丁高로 擬하엿고 後阪地三節八十二錢으로 七十四錢까지 反騰함에 따라 十錢叢로 反軟하엿스나 그後阪八十一錢의 强調를 보고三十七錢에 頑强히 止場하고 後場은 例休이엇다

新春의第一戰

今回의反撥은 政府米買上又는 內地米의 實收減을 機로한양으로 阪地는約四十丁反撥에 對하야 當地는六十五丁이나 反撥하엿다 그래서 今朝는阪地三節八十二錢으로 昨止價보다의二十丁昻騰을 報함에도不拘하고 겨우八丁高인 二圓二十五錢을示할뿐으로 依然 頭重不伸의感을 呈하엿다 要하면此邊에서 相當買야 減退하야 新春의第一期戰을 決하야 三十二圓臺를 無理하야 突破하면 나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一〇〇〇 ⑦一〇〇〇	三〇〇〇	〇先
	一〇〇 ㉢ 二〇〇		
	㊀一〇〇 ⑦二〇〇		⑦九〇〇 ㉖三〇〇

仁川 康益夏

이잇스니 처재正米의反發을期키難하다고하며 反面의弱材料은日內地米實收는 第二回豫想이百二十餘萬石이나 減少이엇스므로實收의又復百萬石減少說은 政府의調査方法으로서의 絶對그러한 誤差를하엿습이라고생각지안흐며 政府米買上은 强氣側뿐만아니라弱氣로도 旣히斷定하는바로 相場에입서繼込하여잇드할수잇스므로 此邊의戾價에는 차아리賣策을하기만不如하다고하다 果然片片으로들린는强弱兩說의 何便이當을得하게될까?

片片의强弱說

新甫三月限은 薄上錦로發會된後 一時頭重傾向의氣를 呈하엿스나 春高氣分의買氣가 依然濟在하야 畢竟三十一圓臺를 突破한二十五錢의高價로 昨取兩線 恢復하엿다 今回의反撥은 아 具體的으로 摘示키 難하나 그러나 强氣側의 觀測하는바에依하면 政府米의 買上은 아즉實現되지 안흐나 此는 時間問題로 早晩間에斷行될것으로 豫하고 在米減收高는 一對

正米 賣物減少 昻騰

京城昻騰 春高人氣가 아직까지아니한때에 各地期米의買上豫想의 奔騰으로 市中人氣忽然彌化하야此邊出廻量으로賣物이 적은때라 市價도二十錢 昻騰되엇다

仁川躍進 內地入注는업스나 奧地正租의 目前一段高價據想으로 賣物이 적어저서 繼續頑强狀을 뵈하야 精米側原料手當旺盛으로 人氣益益强한데에 定期上放을보고 二十錢買煽되엇다 ⑬穀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

木浦奔騰 奧地積雪로 賣物出困難과 政府買上期待로 商人側이 減少하야 着正賣出豫想도 多少期待에어긴때에 各地淸算의 賈上入氣上放을보고 賣繁側의適品買逸과 休日을앞둔地場精米側買當側의買逸으로 市價二十錢奔騰을 演하엿다 ㊍銀坊主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三三、〇五

群山躍進 奧地는賈上豫想으로 賣物이보이지안코 市中도 先高豫想으로 賣態度가 强硬하야 小口賣物을除하고는 浮動米가업는때에 各地淸算의上放을옴겨 市價十錢乃至二十錢의 躍進을보엿다 ⑬銀坊主三等三一、〇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一二、七五

釜山强硬 阪地의 鮮米荷纏도 頃日來漸次解消되게되어 代米入注로 市場賣買는 活況을보고 여今朝定期의 上放을보고 ㉄穀良는十錢高로 堅强하엿다 ㉄穀良三等三二、八五 四等三二、六五 一等白米一二、八七

四〇 銀坊主三二、六〇 三二、四〇 多摩錦三三、一〇 三二、九〇 一等白米四一三〇、一三〇〇

大邱急騰 奧地所持側은春高期待로 商强하고 賣惜態度를가지고 市中在米薄을 告하고잇는때에 此邊을 適賣視한 內地側의 買付가 導火線이되고 다시이買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長 六二九番

海外經濟 (七日)

	七日	比較
紐育 綿花(三月物)	八弗六十五仙	二弗六四仙
同 小麥(五月物)	一弗五仙	一仙低
紐育 銀塊	四四仙七五	不變
倫敦 銀塊	二〇片六二五	不變

鰯油粕・粉麥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製

銀行券 (七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發行高	二三一・〇七二	一、八八六・九九七
正貨準備		
保證準備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金銀價 ◆大阪金利◆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糸布市製

滿洲商況

株式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株式賣買 朝鮮取引所員 朝取證券米豆取引員 株 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案內進呈 福 吉村榮左エ門商店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釜山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京城物價 (八日)

▲白米(斤、單位錢) ▲肥料 ▲紙物(單位圓) ▲紙料(單位錢) ▲砂糖 ▲木材 ▲牛皮 ▲人絹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生糸 ◆橫濱生糸

人絹 ◆各地人絹

棉花 ◆大阪棉花

綿糸 ◆大阪綿糸

期米 ◆日本各地期米 ◆東京期米